

석사학위논문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 복음주의 구원론의 재정립을 위하여 -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조직신학전공

조 성 진

2003년 11 월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 복음주의 구원론의 재정립을 위하여 -

지도교수 이선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1 월 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조 성 진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 복음주의 구원론의 재정립을 위하여 -

지도교수 이선희

이 논문을 신학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1월 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신 학 과

조 성 진

조성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주심위원 인

부심위원 인

부심위원 인

2003년 11월 일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목 차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연구

(복음주의 구원론의 재정립을 위하여)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중세로마카톨릭의 구원론과 종교개혁자의 구원론	5
1. 중세로마카톨릭의 구원론	5
가. 중세로마카톨릭의 종교적 상황	6
나. 중세로마카톨릭의 칭의와 칭의의 수단	8
다. 칭의 교리에 대한 현재로마카톨릭의 입장	9
2. 루터의 구원론	11
가. 칭의론	11
1) 믿음의 정의	12
2) 믿음에 의한 칭의	14
3) 믿음에 의한 중생	15
나. 성화론	17
1) 성화에서의 믿음과 행함	17
2)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18
3)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	18
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	19
3. 칼빈의 구원론	23

가. 칭 의 론	24
1) 성령의 역사	24
2) 믿음의 정의	26
3) 믿음에 의한 칭의	28
나. 성 화 론	30
1) 회개 (믿음에 의한 중생)	30
2) 그리스도인의 생활	32
3) 그리스도인의 자유	33
III. 18세기 영국국교회의 구원론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	35
1. 존 웨슬리 신학의 시대적 배경	35
가. 영국 국교회의 역사	35
나. 그 시대 지식인의 종교관	35
2. 18C 영국 국교회의 구원론	36
가. 로마카톨릭 교회 구원론의 영향	36
나. 청교도의 구원론과의 갈등	36
다. 아르미니안니즘	37
라. 영국국교회 구원론	38
3. 웨슬리의 구원론	40
가. 칭 의 론	41
1) 잘못된 믿음의 개념	42
2) 믿음의 정의	43
3) 믿음에 의한 칭의	45
4) 믿음에 의한 중생	46

나. 성 화 론	47
1) 성화의 원리	47
2) 그리스도인의 완전	49
IV ‘복음주의 구원론’의 공통점	51
1. 칭의론에 있어서 공통점	51
가. 원 죄	51
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계획)	52
다. 그리스도와 연합	52
라. 믿음에 대한 이해	53
1) 믿음의 정의	53
2) 믿음의 근거	54
3)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완전성	55
마. 칭의를 받음에 있어서 행위의 배제	56
바. 몸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서의 칭의와 중생	57
사. ‘어신칭의’의 결과인 자의식적 중생	58
2. 성화론에 있어서 공통점	59
가. 성화의 필연성과 성화의 방식	59
나. 성화의 의미	62
다. 성화의 근거	63
라. 성화의 중심개념의 비교	66
V ‘복음주의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	69
1. 율법 폐기론	70
2. 신인 협동설	73
VI. 결 론	76

I. 서론

1. 문제제기

1517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이 지났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이라는 외침과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과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뜻임을 로마 카톨릭과 온 세계에 일깨워 준 것이다.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 존 칼빈(John Calvin) 그리고 18세기 영국과 전 세계를 각성시킨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John Wesley)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다. 다시 말해 복음주의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으나, 루터와 칼빈을 갈라놓기도 하고, 이들을 신앙 지상주의자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루터와 칼빈이 로마카톨릭의 공로주의의 단점을 극복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를 잘 설명하였다면, 200여년 후 웨슬리는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실천적 수용이라는 것을 첨가하여 신학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학생들의 학위 논문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나타난다.¹⁾

그러나 이는 웨슬리를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요,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며 앞으로 밝힐 내용인 복음주의 신학자 루터, 칼빈, 웨슬리가 성경에 일치한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성화로 완성한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이미 오류로 단정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펠라기우스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의 신인협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발전이 아닌 스콜라 철학을 근거한 로마카톨릭의 신학으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있었던 로마카톨릭 신학으로의 대표적 퇴보는 1999년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에 일어난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이다. 루터파 세계연합회 회장인 크라우세(Christian Krause)감독은 이 공동선언서 중에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아니라 그들의 칭의교리인 세례를 통한 1차 칭의와 고해성사를 통한 2차 칭의를 고수하며 또한 “칭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동의를 통해 칭의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협력한

1) 서상훈, “기독자의 자유에 관하여” (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1-2.

다.”²⁾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로마카톨릭 특사인 캣시디와 공동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루터가 불러일으킨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칭의 교리의 중심 논의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선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1517년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이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루터의 개혁을 이어간 칼빈과 웨슬리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을 오해를 불러일으킨 루터의 추종자들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행동이다.³⁾

또한 ‘이신칭의’의 강조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선언되어지고 있고 이를 동조하는 무리들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다.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건만 이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인식하지 않으려는 세대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각성으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루터, 칼빈, 웨슬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칭의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와 그 깨달음의 동일성에 대해 그들의 일차 문헌을 토대로 증명하며, 복음주의 구원론에 대한 원형을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복음주의 구원론의 재정립’에 대한 연구는 복음주의 안에서 조직신학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복음주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전통적 견해에 따르고자 한다.

복음주의란 신학적으로 볼 때,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며 둘째 성경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성경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드러내고,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와 조명이 필요하다. 셋째 복음주의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부패와 전적무능을 믿는 것이며, 그러기에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는 모든 행위가 배제되며 그리스도의 대속적 또는 대리적 속죄공로를 믿는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복음주의의 중요한 사명인데 말씀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믿음의 유일한 근원이 말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손수 눈에 보

2) 루터교 세계 연맹과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루터교 세계 연맹과 가톨릭 교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 조남홍 역, 『기독교 사상』 493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1), 224-229.

3) Philip H. Evenson, 『칭의론 논쟁』, 석기신·신호섭 역 (서울: 문서선교회, 2001), 서론, 9.

4)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 주제강연2,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임원대회 자료집 (2001. 4. 2~4, 경주), 1-2.

이게 재림하여 그의 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다린다.⁵⁾

한마디로 복음주의의 특징을 말하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즉 “이신칭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복음주의 정의에 따른 신학적 특징의 범위에서 루터, 칼빈, 웨슬리 각자의 신학사상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는 것이며, 또한 이번 연구의 목적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런 복음주의의 특징과 그들의 주장이 동일함을 확인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루터, 칼빈, 웨슬리를 비교하는 것이다. 신학의 방법론 중에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조직신학이 있다. 조직신학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⁶⁾ 특별히 이번 연구의 방법론은 특히 역사신학적 연구가 아니라 조직신학적 연구임을 명확히 해둔다. 역사신학적 연구는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하여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기술한다. 다시 말해 역사신학은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관찰한 결과라면 조직신학은 그 결과가 왜 진실이며 왜 거짓인지를 밝히는 것이다.⁷⁾

연구 방법의 차이에 대해 종교개혁을 예로 들었을 때 역사신학적 연구는 교회에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나, 조직신학적 연구는 교리적 의미를 연구하여 왜 로마카톨릭의 ‘공로주의’가 거짓이며, 왜 기독교 복음주의의 ‘오직 믿음’이 진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 일어난 결과의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 조직신학인 것이다. 또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론의 진위 연구는 조직신학의 분과이지 역사신학의 분과가 아님을 명시해 두고자 한다.

금번 연구의 목적은 교회역사에 있어 복음주의 출발점인 루터, 칼빈, 웨슬리가 구원론에 있어서 그들이 주장한 공통된 개념을 찾아 복음주의 원형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증분석의 방법으로 그들의 1차 문헌을 비교하여 문헌에 나타난 용어적 중심개념을 밝힐 것이다. 그 결과 복음주의 대표인 루터, 칼빈, 웨슬리가 원죄의 상황 속에 우리의 구원의 방법, 즉 ‘이신칭의’에 이르는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했으며, ‘성화의 삶’의 원인과 근거를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알게 될 것

5) R. V. Pierard, "Evangelicalism", in: Walter A. Elwe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Grand Rapid,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4), 379-382,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3), 부록, 238-242의 번역 참조.

6) Wayne A. Grudem,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19-21.

7) 김균진, 「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64-67.

이다.

이를 위해 II단원에서는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의 구원론과 그리고 기독교 복음주의 구원론과 대조가 되는 로마카톨릭의 구원론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 중세 로마카톨릭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종교적 방법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그들이 이해하고 주장한 칭의관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이 현대의 카톨릭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연구 후에 루터의 여러 저술물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⁸⁾를 주로 인용하되 루터의 1차 문헌들을 추가하여 루터의 칭의론과 성화론에 있어서 믿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또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 부분을 인용하여 칼빈 칭의론과 성화론에 있어서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밝힐 것이다.

III단원에서는 종교개혁 후 200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영국과 전 세계를 영적으로 각성시킨 존 웨슬리의 구원론을 연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로마카톨릭의 정치적인 분리와 제도적 일치를 가졌던 당시 영국 국교회(Anglican Catholicism)의 구원론과 당시 종교관을 살펴 본 후에 회심이후의 존 웨슬리가 저술한 1차 문헌을 근거해서 이신칭의와 성화에 있어서의 믿음의 의미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IV단원에서는 복음주의 구원론의 중심개념에서 공통점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로마카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와는 다른 루터, 칼빈, 웨슬리의 이신칭의와 성화에 있어서 믿음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원론에 대한 주된 신학 개념이 동일한 것을 그들의 논증을 분석하며 확인 할 것이다.

V 단원에서는 복음주의 구원론을 오해하여 생긴 ‘율법폐기론’과 ‘신인협동설’에 대해서 복음주의 원형과 비교하며 그 오류를 지적할 것이다. 그 결과 율법폐기론과 신인협동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복음주의 구원론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 의미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부에서는 이 논문의 중심 내용인 이신칭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의 중심 주제를 통해 현 기독교에 부여된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 볼 것이다.

8)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는 로마카톨릭과 화해하려는 루터의 마지막 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글은 “화평과 선한 소망의 증표”로서 교황에게 헌정된 소논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간략한 형태로 담고 있다. 만약 우리가 루터 신앙의 내용과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짧은 글을 골라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가 일 순위가 될 것이다.

II. 중세로마카톨릭의 구원론과 종교개혁자의 구원론

1. 중세 로마카톨릭의 구원론

중세 로마카톨릭은 믿음에 관하여 성경에 나타난 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를 읽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당시 평민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이생과 저승에서 미움을 받지 않도록 미리 마법을 익히는 정도로 간주할 뿐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평신도들이 예수에 대한 관념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운 심판자로만 인식했다.⁹⁾

그 결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당시 로마카톨릭 스스로가 정의 내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의 첫 번째가 교회가 잘 믿고 있으니 교회를 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소위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무지를 ‘믿음’이라고 바꾸어 잘못 가르친 것이다. 감정을 공손하게 교회에 복종시키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해도 이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쳤다. 당시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조건만 붙으면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것을 맹신이요, 안목적 신앙이라고 부른다. 또한 이것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암흑을 광명이라 착각하듯이, 맹신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¹⁰⁾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길에서 행해지는 성경이야기의 연극이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이란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에 보통으로 찬성한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보다 더 깊은 무엇으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이해할 능력도 없었다. 사실을 모르고 동의하는 것, 다시 말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무지에 가득찬 맹신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속에 평신도들은 7성례와 각종 절기에 대해서 맹신적으로 순종해 갔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 평신도들은 두려움에 근거한 미신적 신앙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¹¹⁾

가. 중세 로마카톨릭의 종교적 상황

1) 중세 로마카톨릭의 성례전(7성례)

9) 정수영, 『새교회사II』 (대전: 도서출판 명현, 2000), 36.

1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15-21.

11) 정수영, 『새교회사II』, 36.

로마 교회의 7성례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성례란 은혜의 보이는 형식 또는 은혜를 얻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또한 의를 부여하는 도구로 이해되었는데 로마카톨릭 교회는 성례를 통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¹²⁾ 7성례는 출생의 성례(세례), 성장의 성례(견신례), 양육의 성례(성만찬), 매일 매일의 죄들의 치료(참회), 죄의 잔재의 제거(종유), 번식의 과정을 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결혼(혼례), 성직을 받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성직 수임성(임직)이다.¹³⁾

이 7성례 중 로마카톨릭의 칭의의 관점을 알기 위해 이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세례는 첫 번째 칭의이다. 세례를 통해 은총이 죄인에게 주입되며 이 은총은 과거의 죄들을 없애주며 수령자의 죄의 충동들을 약화시킨다. 세례는 원죄를 제거하고 구원 얻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세례를 구원의 배라고 생각했다.¹⁴⁾

성만찬에 있어서는 화체설을 근거로 공덕의 증가로 보고 있으며, 또한 성찬에서 화목 제사는 트랜스 공회에서 분명하게 강조된 것처럼 그 이유는 연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의 공양을 위해 드러졌다.¹⁵⁾

고해성사는 세례나 성찬에 비길 바 못되었으나 중세교회의 중요한 성례였다. 로마카톨릭은 고해를 통해 모든 자범죄를 사함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케해 주고 고해가 없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쳤다. 고해는 죄와 보상이라는 사상에서 나왔다. 사제가 회중을 대표하여 벌을 부과하기도 하고 용서를 베풀었다. 고해를 하면 큰 죄는 작은 죄가 되고 작은 죄는 속량함으로 인해 사함을 얻는다고 믿었다.¹⁶⁾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카톨릭은 원죄는 세례를 통해 그리고 자범죄는 고해성사를 통해 사죄된다고 믿었으며, 성만찬과 같은 종교적행위 혹은 선행으로 자신의 의를 증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행위가 죄를 사하기도 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도 하는 것이었다.

2) 선행의 공덕과 공로의 보화

중세 로마카톨릭은 회개의 정신을 표하기 위해 선행을 한 사람은 그 만큼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쳤다. 교황청은 선행의 공덕에 따라 죄 사함을 베풀었다.

교황은 그리스도와 성자송배사상에 근거해 축적해 놓은 공덕에 힘입어서 죄를

12) Wayne A.Grudem, 『조직신학(하)』,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171.

13) 김기련, 『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1), 32.

14) Ibid, 32-33.

15) Ibid, 33-34.

16) Ibid, 35-36.

사했다. 즉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희생과 공로는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한 은혜를 로마 교황청이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황은 교회에 쌓인 공로들을 신자들에게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상은 바로 면죄부 판매의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¹⁷⁾

위의 근거로 보았을 때, 당시에는 의로워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 면죄부를 많이 사거나 사제가 되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부자가 의인이고 믿음 없는 사제가 의인이며, 이 사제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옥사상

중세 로마카톨릭은 연옥사상을 가르쳤는데, 연옥은 의인이 누리는 영복과 천국 그리고 악인이 받는 영벌의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처소이다. 인간이 죄의 보상을 다 치르기까지 죽은 영혼이 괴로움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는 곳이라고 가르쳤다. 로마카톨릭은 성자와 복자 위에 올려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중간 처소에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독실한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로 아니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이를 믿었다.¹⁸⁾

중세 로마카톨릭 미사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 자체도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사는 면죄부는 선한 행위보다 못한 미신적 행위였다. 연옥의 교리는 그레고리(Gregory der Grobe, 590-604)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이것은 외경 특히 마카비후서 12장 42-45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교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무언가 더할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이며,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 죄 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¹⁹⁾ 또한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중세 로마카톨릭의 성례, 선행의 공덕과 공로의 보화, 연옥사상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거부’와 자신의 공로주의의 문제 외에도 성자숭배, 성모숭배, 성물숭배, 미신숭배, 교황무오설 등 중세 로마카톨릭은 성경(기독교의 정경)에 위배된 우상숭배, 미신사상들이 난무하였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다.

17) Ibid, 38-39.

18) Ibid, 40.

19) Wayne A.Grudem, 『조직신학(하)』, 513-516.

나.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와 칭의의 수단

1)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의 본질과 근거

중세 카톨릭 칭의의 본질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공덕주의를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를 배격하고 있다. 그들은 칭의를 1차 칭의와 2차 칭의로 나누는데, 1차 칭의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2차 칭의는 선행을 통해 공덕의 상수를 쌓아 의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칭의 교리가 성화 교리와 동일한 것이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성화와 구분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칭의가 성화 위에서 기초되며 성화에 의존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은 2차 칭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 죄인은 거룩해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칭의 교리가 우선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단순한 주입을 의미하며, 둘째로 그것은 죄인 내부에 발생하는 내재된 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할 뿐이다.²⁰⁾

중세 카톨릭의 칭의의 근거는 죄인을 저주에서 구원해 주며 하나님의 용인과 은총을 수여해 주는 선언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아니다. 여기에서 칭의는 인간의 죄를 종결시켜 주시는 법정적선언이 아니며, 또한 심판주와 죄인의 관계에서 총애의 대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선언이 아닌 것이다. 도리어 그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주입된 의를 의지적으로 사용하여 의로움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²¹⁾

2)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의 수단과 효과

중세 로마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의를 수여하시는 통로와 인간이 사죄와 영원한 생명을 수여 받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순종의 근원들이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장한다.²²⁾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례 시에 첫 번째 주입되는 믿음이다. 중세 로마카톨릭은 이 세례 시에 주입되는 믿음이 원죄를 삭제시켜주고, 자범죄에 관하여는 연옥까지 가는 죄를 제외하고는 죄인들을 고해와 사면의 선언을 통해 회복되고 갱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죄된 인간이 죄의 사면과 칭의를 얻는 근거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아니라 세례시 주입된 인간 안에

20) James Buchanan, 「칭의 교리의 진수」,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02), 140-141.

21) Ibid, 141-143.

22) Ibid, 144.

내재된 의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보다도 먼저 단순한 지적인 신념, 혹은 계시된 진리에 대한 동의로 정의된다. 이것은 성경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다. 그러기에 단순한 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칭의로부터 발생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영원한 결과에 대하여 중세 로마카톨릭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에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이 십자가의 공로 위에 무엇인가를 더 첨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그들은 칭의의 효과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완전한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겼고, 더 나아가 그 칭의의 효과를 자신뿐 아니라 다들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로로 간주하였다. 그들이 선호하는 교리적 원리에 따르면 칭의는 성화와 동일하거나 성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도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실제로 의로워졌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러기에 칭의는 현재적 특권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결국 세례 이후에 범하는 죄에 상응하는 만족으로서의 임시적 형벌을 책임져야만 하는 상태이다.²³⁾

이로 볼 때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 교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방법에 인간이 발명한 사상과 고안한 방법을 접목시킨 것이다. 이 교리의 전체적인 경향은 인간을 높이고 자랑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만족에 기뻐하는 것이요, 인간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이었다.

다. 칭의 교리에 대한 현재 로마카톨릭의 입장

지금까지 중세의 로마카톨릭 교리적 입장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면, 현재의 로마카톨릭의 입장은 어떠한가 알아보아야 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연구가 과거 교회의 문제를 정리하는 역사적인 연구가 아닌 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의 진위를 연구하는 조직신학적 연구이기 때문이다.

최근 로마카톨릭이 칭의 교리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Protestant)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²⁴⁾, 로마카톨릭과 연합해서 복음적 신인협조설(Evangelical Synergism)로 나아가야 한다는 소리와 함께 로마카톨릭의 신학을

23) Ibid, 148-150.

24) 루터교 세계 연맹과 카톨릭 교회의 의화 교리에 관한 합동 선언문을 통해 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 합동 선언문 자체에 대해서도 루터교 내에서 루터의 신학과 다르다는 많은 이견들이 제시됨과 동시에 이 선언문은 실질적으로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또한 카톨릭 교회는 트랜스공의회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교리적 수정이 있지 않았다.

수용해야 한다²⁵⁾는 소리도 하고 있지만, 실상 16세기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성례와 면죄부 그리고 연옥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오류와 실수로 단정 지었을 뿐 아니라, 현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믿고 따르는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 외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칭의교리를 수용하는 자는 교회에서 파문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정죄 했던 트레نت공의회(The Council of Trent : 1546-1563)에서 결정된 교리들에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결과적으로 현대 로마카톨릭의 가르침은 칭의가 죄인의 신분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내성을 변하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치며, 또한 신자에게 전가(Imputation)되는 그리스도의 독립된 의, 다시 말해 자신의 외부로부터 오는 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의를 거부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본 것처럼 로마카톨릭에서 칭의가 얻어지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기보다는 세례성사를 통해서라고 가르치며, 또한 고해성사를 칭의와 연관시키고 있다. 현재 로마카톨릭의 요리 문답서는 트레نت공의회 결정에 따라 면죄부, 연옥 그리고 공적의 보고와 같은 비 성경적인 주제들에 대하여서도 고해(Penance)라는 주제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보건대 로마카톨릭은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의 행위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또한 인간의 공로와도 관계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²⁷⁾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생명의주체라고 주장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사도바울의 시대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의 뒤를 따르는 것이요, 또한 중세 로마카톨릭을 거쳐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생명의 주체가 되려는, 즉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찬탈(Displacement of God)이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보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를 거부하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간 종교 개혁자들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25)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1997/1999에 대한 2000년 11월 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있었던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 신학대화의 회고와 전망(강사: 김성태 신부, 이형기 교수)에 대한 논찬에서 감신 대학의 김흥기 교수는 이 선언에 대한 루터교 내의 많은 이견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오늘의 루터 교회가 인간의 적극적인 반응 곧 신인협동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또한 하나님 100% 인간100%의 인간편에서의 실제적 반응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로마카톨릭의 오류인 칭의를 성화와 혼합된 형태로 봄으로 인해 성화를 칭의의 근거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26) Philip H.Evenson, 「칭의론 논쟁」, 121.

27) Ibid, 128-136.

2. 루터의 구원론

가. 칭 의 론

칭의와 중생 이전 루터는 수도원에서 자신의 공덕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에서 많이 괴로워하였다. 루터에게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였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칭의와 중생 이전 루터에게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자적인 의미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는 ‘의로 죄인을 벌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즉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며 고뇌하였다. 그는 로마서 1:17에서 나타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단지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였기에 그는 심판자적인 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제시하신 의에 이를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이 말씀이 그를 그토록 괴롭혔다. 이 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를 알지 못하는 원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1545년 발행된 그의 라틴어판 저작집 제1권의 서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기 위해 갈망하였고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밤이든 낮이든 이 말씀의 내용에 매우 오랫동안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루터는 그때에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의해 의 가운데 사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비로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때에 칭의와 중생을 하는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음을 느꼈고 마치 열려진 문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²⁸⁾라고 고백한다. 다시 말해 ‘믿음을 통한 수동적인(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의에 의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은 것이며 이 때 그는 칭의와 중생을 경험한 것이다.

루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칭의와 중생 이전에는 원죄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다. 루터는 “인간에 관한 토론문(1536. 1. 14)”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확실히 인간은 그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이중적 악인

28) W. W. Lowenich, *Martin Luther. Der Mann und das Werk*, 80-81. 김문기, “루터의 신앙과 칭의에 대한 이해와 루터교와 가톨릭의 칭의에 관한 공동 선언,” 『루터 칼빈 웨슬리 구원론 비교』 (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12-13에서 재인용.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사로잡힌 의지는 절대로 올바른 이성을 따를 수 없고, 그 결과로 세상 일들에 자유 의지가 없다²⁹⁾라고 말하며 이 주장을 통해 인간은 원죄와 그로 인한 전적부패와 전적무능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고 그러기에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설명하는데, 지금부터는 칭의의 근거인 믿음의 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믿음의 정의

루터는 자신의 대표적인 글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의미와 실제적인 믿음의 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서론에서 그는 믿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보아왔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체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선언하신 대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³⁰⁾

루터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에서 당시의 카톨릭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취급하고 있음과 일반적인 덕목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루터는 이들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과 일반적인 덕목으로 취급하는 이유를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적용시키면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보거나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로 보는 이유는 너희가 영벌에 떨어질 믿음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당시의 로마 카톨릭을 지적하는 것이다.

루터는 믿음은 성령이 동반되며,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또한 성령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믿음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살아

29) Martin Luther, “인간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6)』, 지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9), 360-363.

30)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선희 역 (미간행번역원고), 1.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루터선집(5)』, 301.

있는 샘물” 이기 때문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에서 믿음은 루터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며 또한 살아있는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를 위한 서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믿음의 의미를 설명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 요한복음 1장[:13]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 믿음은 결코 행해야 할 선행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질문이 던져지기 전에 선행을 이미 행하고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고 있다.”³¹⁾

여기에서 루터는 믿음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설명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믿음에 성령이 동반되어져 어떠한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루터는 믿음이 사람이 자기 속으로부터 생산하는 신념이나 동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중생)의 원인이자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루터가 말한 변화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칭의는 여기에서 말하는 원죄의 상징인 옛 아담이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생은 칭의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를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루터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통해 믿음으로 칭의와 중생이 일어나는 것과 이 중생(거듭남)이 자각된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루터는 믿음으로 인한 성화를 설명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마음과 뜻과 생각에 있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생생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능력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되어 선행에 있어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복종의 삶을 살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다.

루터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보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행동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1) Martin Luther, “로마서 서문,” 『루터 저작선』, 존 딜렌버거 편집,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62.

Martin Luther, “바울이 로마서에 붙인 서문,” 『루터선집(4)』, 48-49.

2) 믿음에 의한 칭의

가) 믿음의 근거인 말씀과 말씀에 동화됨

루터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와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 하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거나 혹은 기록된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임을 선포한다.³²⁾

루터에게 있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말씀(복음)에 동화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루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육적인 것과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믿음을 유일한 조건으로 내세운다. 유일한 조건으로 믿음을 내세우는 이유는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³³⁾

나) 믿음으로 인한 칭의인 그리스도와 연합됨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이신칭의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는데,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는 믿음이라는 예물을 통하여 굳게 결합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믿음이 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새 번째 은혜는 이런 것이다.: 믿음은 영혼과 그리스도를 마치도 신부와 신랑을 결합시키듯이 결합시킨다.(엡 5:31f. 참조). 이 성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뒤따라온다. 이 둘에게 속한 것은 모두, 즉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 공동의 것이 된다. 그래서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³⁴⁾

이 결혼의 비유에서는 믿음에 대한 약속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은 영혼과 그리스도를 마치 신부와 신랑을 결합시키듯이 결합시킨다. 이 결합은 육신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영혼의 변화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32) Martin Luther, “이것은 내 몸이니라,” 『루터선집(7)』, 307.

33)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6-8.

34)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09.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5.

의미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의한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믿음은 결혼의 증표인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결혼 증표인 믿음을 보고 신부인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다. 이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인 영원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이 비유에 담긴 이 신칭의의 의미이다.

이 결혼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그 주체가 하나님이 시기에 행위가 배제되는 것이다. 이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고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이 연합의 근거인 믿음을 통해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이 그에게 선사되었기 때문이다.³⁵⁾ 또한 이 결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이다.

2) 믿음에 의한 중생

루터는 중생을 칭의와 분리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믿음의 정의 부분에서도 명시하였듯이 의미상으로 법정적 개념의 무죄 선언인 칭의, 그리고 칭의로 인한 거듭남인 중생을 구분지어서 설명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결혼의 비유가 그리스도와 연합인 칭의를 설명하였다면, 이 연합의 결과로 얻어지는 특권을 설명하기 위해 왕의 비유와 제사장의 비유를 사용한다. 이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의 결과인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왕의 비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하여 만물 위에 높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관점에서 만물의 주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해칠 수가 없다. 오히려 만물은 그에게 굴복되어 있으며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 오직 내게 믿음만 있다면 만사가 나에게 봉사하여 최선을 이룰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³⁶⁾

35) Ibid, 16.

36) Ibid, 19.

루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왕과 같다고 설명한다. 루터가 이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의 의미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왕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을 지배한다는 의미의 왕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이 믿음이 가진 자를 해칠 수없고 또한 만사로부터 유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루터는 오히려 고린도후서 12장 9 절 말씀을 인용하며 “내 능력이 약함 안에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말한다.

이 왕의 의미는 오직 믿음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귀한 권세요 자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칭의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귀한 권세와 자유를 소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인해 만사가 봉사하여 최선을 이루게 되는 왕의 권세를 소유한 것이며 이로 인해 만물이나 행위에게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왕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믿음의 결과인 거듭난 자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왕의 직분을 설명함에 이어 제사장 직분을 설명한다. 루터는 시편 110편 4절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직을 허락하셨음을 말한다. 이 제사장의 비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특권을 더욱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지극히 자유로운 왕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제사장이다. 이것은 왕의 직분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가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여기에서도 우리는 루터가 말한 제사장직이 단지 교회 내에서 직임으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도 교회 내에서의 특권으로서의 제사장직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수여 받는다.

이 믿음으로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여된 권한은 왕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왕의 직분을 가지는 것의 의미는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있어서 만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만물(행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위에 있다는 것이라면 이 제사장직은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부여 받는 영적 특권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제사장의 비유에서 믿음의 결과로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2-313.

37)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0.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3-314.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제시한다.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칭의의 결과로 인한 거듭난 자의 특권이다. 또한 루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과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받은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로 제시한다.³⁸⁾ 이것은 로마카톨릭의 사제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또한 루터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제사장의 특권으로 소개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부여 받은 위대한 특권이자 성도의 사명인 것이다.

나. 성 화 론

1) 성화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

루터는 성화를 이루어 나아감에 있어서 그의 의지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 이는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또한 그 선행의 근원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봉헌된 주교의 비유’와 ‘목수의 비유’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성화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이미 봉헌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선행을 통해서는 더 이상 봉헌되는 것이며 또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³⁹⁾

루터는 봉헌된 주교의 비유를 통해 선행을 하기 때문에 주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봉헌된 주교이기 때문에 주교로서의 행실이 나오는 것을 예로 들며 선행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선행으로 거룩함의 과정에 들어 설 수 없음을 가르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능하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처럼 진정 봉헌된 주교가 봉헌된 주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

38) Ibid.

39)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6.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20.

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루터는 마태복음 7장 18절을 인용하여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선행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거룩함을 밖으로 표현 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나쁜 집이나 또는 좋은 집이 나쁜 목수나 좋은 목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목수가 좋은 집을 만들고, 나쁜 목수가 나쁜 집을 만드는 것이다.”⁴⁰⁾ 라고 목수의 비유를 말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생명력이 없는 집이 살아있는 목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좋은 목수는 좋은 집을 만드는 것이고 살아있는 나쁜 목수가 나쁜 집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력 없는 행위가 생명력 있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닌 생명력 있는 사람(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에게 그 생명력(거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그의 이웃에게 행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면서 그 자신에게만 무엇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행함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루터는 율법폐기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믿음에서 비롯된 성도의 삶은 율법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루터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자로서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함을 의미한다.⁴¹⁾

루터에게 있어 성도의 삶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며 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위해 자신의 몸을 순종하게 만드는데, 이는 그 만큼 더 올바로 그리고 더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 삶을 루터는 로마서 14장 8절을 인용하여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으로 설명한다.⁴²⁾

3)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

루터는 성화의 핵심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사

40)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7.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21-322.

41)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5.

42) Ibid, 31.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⁴³⁾ 이것은 이웃 사랑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루터에게 있어 구원 얻은 성도는 가치 없고 저주받은 인간인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비를 통하여 의와 구원의 모든 부요함을 주셨음을 깨달으면, 이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웃에게 일종의 그리스도로서 우리 자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나온 이웃 사랑에 대한 최고로 생각한다.⁴⁴⁾

루터는 로마서 5장 5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됨”을 근거로 하여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음바된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로우며, 진정으로 기쁘며, 모든 일에 능하며, 행동하며, 모든 곤핍을 극복하는 승리자며, 이웃을 섬기는 중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인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 자유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자유의 삶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⁴⁵⁾

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

루터의 신학의 주요 개념인 십자가 신학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의’에 대해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외부에 십자가 신학의 개념이 소개된 것은 1518년 4월 26일에 있었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어거스틴 교단의 수도사회의 개회 토론에서였다. 그는 이 하이델베르크 토론에서 십자가 신학의 주요 개념을 명제 19와 20에서 제시한다.

“19.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일어난 사물들 가운데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학자로 불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롬 1:20)

20.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보이고 명백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⁴⁶⁾

43) Ibid, 33.

44) Ibid, 34

45) Ibid, 35

46) Martin Luther, “하이델베르크 논제,” 『루터선집(5)』, 248.

루터에게 있어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계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그 계시 안에 숨어 계신다. 위의 명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철학적 사상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사람들은 이미 신학자의 자격이 없다⁴⁷⁾라고 말하는데, 이는 중세 로마카톨릭의 신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인 계시, 다시 말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없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믿음을 정의하고 그 가치를 일반적인 덕목이나 혹은 단순한 지적 동의로 비하시켰다. 루터는 이미 그들은 신학자의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루터의 신학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계시는 간접적인 것이며 감추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계시되어진 분이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지만, 그 분이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해 이 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뒷 모습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알려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계시이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오직 믿음의 눈에 의해서만 인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겹손과 수치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으나 믿음이 허락된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루터의 참된 신학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⁴⁸⁾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신학이 믿음의 신학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루터에게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기에 루터의 신학은 또한 말씀의 신학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십자가와 말씀의 신학은 오직 믿음의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믿음을 통해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인식되어지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그것의 힘이 사유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의 완성인 십자가와 서로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이다.

47) Alister E. 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최대열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1), 160.

48) Ibid, 161.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인간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어떻게 의롭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⁹⁾

위의 주장을 통하여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임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의로워지는 은총의 수단이다. 또한 결혼의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신자들과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믿음은 성화의 근거이다. 이 영적인 결혼의 연합은 법적 무죄선언일 뿐 아니라, 무죄선언으로 인한 실제적인 변화(거듭남)가 일어나는 것이다.⁵⁰⁾ 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순종의 삶(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논제는 신학적인 논제와 철학적인 논제로 나뉘는데 루터는 신학적인 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행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다.

“26.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나, 그것이 이루어진 일은 결코없다. 은총은 ‘이것을 믿으라’와 말하나,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져있다.

27. 사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업적을 활동하는 일이라고 부르고 우리의 업적을 완성된 일이라고 불러야 하며, 그 활동하는 일은 은총에 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성된 일이 되어야 한다.

28.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존재하게 된다.”⁵¹⁾

먼저 루터는 행위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율법이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시한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뜻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되는 영적인 원리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⁵²⁾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이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의에 일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업적은 활동하는 일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에게서 시작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활동하사 그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어지는 일인 것이다. 이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발견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49) Ibid, 189.

50) Ibid.

51) Martin Luther, “하이델베르크 논제,” 248.

52) 야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기에 루터의 신학은 ‘말씀의 신학’ 그리고 ‘십자가의 신학’이다. 루터의 신학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이 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이며, 그러기에 그의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이다.⁵³⁾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루터는 육신적이고 심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한다. 다시 말해 이는 당시 중세 로마카톨릭에서 행하던 정신적, 육신적 수도를 통한 공로의 획득의 불가능과 또한 고해성사 같은 거짓된 심리적 만족감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과 이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단지 이성적인 인식작용(고행이나 선행을 통한 만족, 혹은 고해성사를 통한 죄에 대해 용서를 받았다는데서 오는 만족감)을 통해 마음에 생긴다.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개념이었다.⁵⁴⁾

루터는 참된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기에 루터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있었으며 또한 신앙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굳센 확신 혹은 그리스도에 의해 속죄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라고 말한다.⁵⁵⁾ 이는 루터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말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 것이다. 다시 말해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일치 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의 신앙과 신학의 근거이다.

루터에게 있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루터의 신학은 로마카톨릭의 구원론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속죄공로에 따른 법정적인 개념의 칭의와 칭의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성화를 나타내는데, 루터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선한 일들을 한다.”⁵⁶⁾ 라고 말하며 선행은 칭의 받은 자에게 맺히는 열매인 것을 명시한다.

53) Martin Luther, “하이델베르크 논제,” 247-248.

54) 김문기·이선희·최윤배, “루터의 신앙과 칭의에 대한 이해와 루터교와 가톨릭의 칭의에 관한 공동 선언,”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7.

55) Ibid, 9.

56) Martin Luther, “칭의에 관한 토론문,” 375.

3. 칼빈의 구원론

존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로 유럽 특히 프랑스와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였으나 신학에도 많은 연구를 하여 교부학 그리고 헬라이어 성경에도 능통하였다. 그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의 저서를 연구하였고 또한 그의 종교 개혁사상을 고취받았다.⁵⁷⁾

당시 로마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 나타난 회심부에서 “하나님은 교황의 교리와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급격한 회심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이었으며 개혁의 대상이었다.⁵⁸⁾

칼빈의 신학적 사상은 루터의 신학과 일치한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데 이는 한 마디로 믿음을 통한 칭의를 믿는 것이고, 또한 ‘이신칭의’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화’됨으로써 흠없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감을 주장한다.

칼빈 신학의 특징은 루터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한다는 사실이다. 루터는 율법적 하나님의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에 대하여 강조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 2세대로 사람들이 루터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오해함으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칼빈의 신학에 대한 특징을 세가지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오직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 아래서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강조,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셋째 예정론을 강조한다.⁵⁹⁾ 이 세 가지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존중이요, 강조인 것이다.

칼빈은 중세 로마카톨릭의 주입되며 획득되는 칭의관을 거부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은혜’로서 칭의와 성화를 말하며, 칭의와 성화는 상호 동일하지 않고 상호 구별되나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본다.⁶⁰⁾

이 단원에서는 칼빈의 대표적 저서인 “기독교강요”의 구원론 부분을 통해 그의 칭의론과 성화론을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그 중심개념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지만 구원의 시간적, 단계적 순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칼빈은 구원에 있어서 시간적, 단계적 순서를 말하고 있지 않다. 이 시간적, 단계적 순서는 17세

57) 김기련, 『종교개혁사』, 281.

58) Ibid, 282.

59) Ibid, 286-291.

60) 김문기·이선희·최윤배, “요한 칼빈의 구원론: 의와 성화 관계를 중심으로,” 53-57.

기 개신교 정통주의(루터파 또는 개혁파)에서 이해된 것이다. 오히려 칼빈은 신학적, 논리적으로 구원을 이해하였다.⁶¹⁾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서 살펴본 중세 카톨릭의 구원 개념과 다른 기독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로서 칼빈이 바라본 구원론의 중심개념을 살펴 보고자 한다.

가. 칭 의 론

1) 성령의 역사

칼빈은 그의 구원론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데 대해서 설명한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의 속죄공로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⁶²⁾

가) 성령의 작용 중 칭의와 성화

칼빈에게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다. 또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유를 성령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을 성령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그가 성경을 통해 본 성령의 사역 중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와의 관련성이다.⁶³⁾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작용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와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의 거룩해지는 과정인 성화를 말함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거룩한 생명을 불어넣으시므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과 자극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주장한다.⁶⁴⁾

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의 의미

칼빈에게 있어 이신칭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합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그의 살 중의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 저 거룩한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만 우리와

61) Ibid, 53.

62)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7.

63) Ibid, 7.

64) Ibid, 11.

결혼하신다.”⁶⁵⁾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와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속죄공로는 우리에게 무가치한 것일 뿐이다. 이 연합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타난 “결혼의 비유”와 같은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그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한 것이다.

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확신을 주시는 성령

칼빈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믿음으로 보았다. 칼빈은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 하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성경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라고 가르친다. 이 선생의 노력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성령의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어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⁶⁶⁾

칼빈은 이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알게 하시는 선생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칼빈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한다. 칼빈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체화하기 위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효과를 드러내시는 것을 설명한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또한 분별의 영(요20:3) 마음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다면 빛이 눈 먼 자에게 비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나라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열쇠라고 불리며, 성령의 비취 주심이 곧 우리의 예리한 통찰력이다”⁶⁷⁾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 생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칼빈이 말하는 ‘조명’이요 같은 의미로 웨슬리의 표현은 ‘자명성’이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짝을 이룬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믿음의 근원이며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칼빈이 믿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설명한 것은 루터의 믿

65) Ibid.

66) Ibid, 12.

6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12.

음의 정의인 ‘일하는 말씀’을 좀더 친절하게 세분화하면서 설명하여 성령의 기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2) 믿음의 정의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는 중세 로마카톨릭의 신인협동적 구원관에 대한 루터와 칼빈의 반대된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칼빈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 주된 일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칼빈이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무엇을 이해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 죄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

칼빈은 “왜 오직 믿음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전적타락(Total Corruption)과 이로 인한 전적무능(Total Impotence) 그리고 비참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설명한다. 구원계획은 죄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그리고 “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에 칼빈은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므로(딤후 6:16)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했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한다.⁶⁸⁾

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란

칼빈은 신앙심을 빙자한 ‘무지’에 대한 비판을 한다. 로마카톨릭의 맹신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명백히 아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명백히 인정하는 것인 이해에 입각한 신앙을 믿음으로 제시한다.⁶⁹⁾

(1)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첫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칼빈은 믿음과 말씀 사이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에서 빛을 분리해 낼 수 없는 것처럼 끊을 수 없는 관련이 있다⁷⁰⁾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본성을 지키지 못하며 오류에 빠지게 됨을 제시하는 것이다.

68) Ibid, 15.

69) Ibid, 17-18.

70) Ibid, 22.

또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예를 들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물음과 그 답이 칭의의 믿음이 아닌 것을 나타낸다. 칼빈에게 있어 믿음이란 이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⁷¹⁾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인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말씀에서 얻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뇌의 현상이 아니라 변화된 영혼의 직관이다.⁷²⁾

(2)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충족성과 완전성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시 로마카톨릭의 칭의관은 1차적, 주입적 그리스도의 의에 선행을 첨가해야 2차 칭의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칼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믿음만으로 충분하며, 믿음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고전13:2)라고한 바울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역설한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들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뜻으로 쓰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사랑이 결여된 믿음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 자체에 결여가 있을 수 없다.”⁷³⁾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작든, 크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또한 칼빈은 이 믿음은 부족함이 없기에 인간의 노력을 첨가해야 완전하게 형성된다는 로마카톨릭의 칭의관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다.

(3) 믿음의 결과인 확신

칼빈은 로마카톨릭의 믿음에 대한 대표적 오류인 믿음을 단지 이성적 작용이라고 본 것에 대해서 믿음은 인식이나 지각을 통한 사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하며 믿음은 지식의 이해가 아니라 영적 변화이기 때문에 “확신”이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믿음을 정의함에 있어 로마서 5장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확신을 내포하고 있음을 제시하는데, 그는 이를 통해 확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71) 위의 가) 단원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죄 된 인간을 향한 구원계획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을 의미한다.

72) Ibid, 23-25.

7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27.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사도는 믿음에서 확신이 나온다고 하며 확신에서 담력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이 ‘화평’이라고 부르는 확신이 드디어 생긴다.(롬5:1)”⁷⁴⁾

칼빈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인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법정적 선언 이후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자의식적이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서론에서 당시 로마카톨릭의 믿음에 대해 비판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주장한 내용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로 간주하지만 이는 그들이 실제로는 믿음을 한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⁷⁵⁾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으로 칼빈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실제적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나타낸다.

(4) 믿음에 나타난 약속의 실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주의의 믿음에 대한 정의중 공통점 중 중요한 하나는 바로 그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칼빈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었음을 제시한다.

“우리가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 모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재하실 때 은총은 반드시 우리에게까지 도달한다. 성경은(롬15:8)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며 실현된다고 당당하게 가르친다.”⁷⁶⁾

칼빈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안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가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밝히는 것은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고민하다가, 칭의와 중생 이후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의임을 발견한 것과 같은 것이다. 루터가 말한 “모든 신학의 출발점이 이 십자가이다.” 라고 말한 십자가 신학과 칼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⁷⁷⁾

3) 믿음에 의한 칭의

74) Ibid, 37.

7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01.

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59.

77) 김문기, 이선희, 최윤배, 「루터의 신앙과 칭의에 대한 이해와 루터교와 가톨릭의 칭의에 관한 공동선언」, 11-14.

가) 칭의 교리의 의미

사실 이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부분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의 역사,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 그리고 회개 즉 믿음에 의한 중생 이후에 위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시간적 순서에서 칭의가 성화 이후에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칭의 부분에 대해 칼빈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인간을 위하여 구원을 회복하는 수단이 단 하나 남아 있다는 것을 즉 믿음으로 회복하는 수단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나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설명했다고 믿는다. 믿음 자체는 무엇인가라는 것과 믿음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결과도 설명했다고 믿는다 이제 이 설명들을 요약하겠다.”⁷⁸⁾

다시 말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의 구원론중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칭의는 중생 이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증언과 같이 “믿음 자체는 무엇인가”라는 것과 “믿음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결과”의 요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칭의보다 중생이 먼저 있으면 오류가 생긴다. 칼빈에게 있어 중생은 성화인데 성화 이후에 칭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은 성화가 칭의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으로 로마카톨릭의 주장과 같아지는 것이다.

칼빈은 이중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 칭의를 설명한다. 이중 은혜는 첫째 흠 없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심판자 대신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칭의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신장할 수 있는 것이다. 칭의는 로마카톨릭이 주장한 주입된 의에서 출발한 인간의 의지와 결단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성화하는 것이다. 칼빈은 분명히 “믿음은 선행을 겸하여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⁷⁹⁾라고 말하며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하고 있다.

나)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하심’ 부분에서 칼빈이 믿음을 근거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것에 대해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칼빈이 설명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연합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칼

7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249.

79) Ibid, 249.

빈은 가장 중요시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저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에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칼빈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행위에 의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래와 같이 충고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한다. 우선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는 서로 다르다 즉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넘어져야 할 정도로 다르다.”⁸⁰⁾

칼빈은 이처럼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로마서 10장 3절을 근거로 이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유대인들이 멸망한 원인임을 바울의 말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칼빈은 사람이 중생 이전에 행위든 중생 이후의 행위든 그것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함을 명시하며 중세 로마카톨릭의 주장을 반박한다.

“바울은 어떤 명칭이 그 행위들을 미화하든지 간에 모든 행위가 배제된다고 말하며 사도가 가르치려 하는 것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준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에 의한 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의라는 것이다.(롬 10:59)”⁸¹⁾

위의 주장으로 볼 때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인 성화와 의는 서로 다르며 의롭다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는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로마카톨릭은 첫 번째 칭의 이후, 두 번째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세례시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에 인간의 행함으로 인한 공덕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들은 인간의 협동을 강조하는 공로주의를 표명하나 복음주의의 대표인 칼빈은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칭의 이후의 행함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에 배제됨을 분명히 나타낸다.

그러면 칼빈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기록해져 가는 삶의 과정인 성화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 성 화 론

1) 회개(믿음에 의한 중생)

칼빈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결과로서 중생을 언급한다. 칼빈은 회개와 중생

80) Ibid, 269.

81) Ibid, 270.

그리고 거듭남을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는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왕의 비유와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 믿음으로 인한 칭의 이후에 신분이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과 변화됨에 따른 결과와 혜택을 나타낸 것과 같은 의미이다.

루터는 칭의와 중생을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으나, 믿음의 역동성을 설명하면서 중생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하였고 우리는 이를 확인하였다. 칼빈은 이 중생을 칭의와 구분되나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성화의 근거이자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 중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요성을 칭의의 결과 쪽에 더 두든 아니면 성화의 시작 쪽에 더 두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루터, 칼빈, 웨슬리에게 있어 중생은 칭의 결과이며 성도의 거룩한 삶의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칭의하며 칭의의 결과로 중생한다. 또한 이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인 것이다.

가)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신자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칼빈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은혜를 받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그로 인해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결과를 첨가해야 그 주장이 완전하다고 말한다.⁸²⁾ 이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실제적 죄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 느끼게 되는 평안을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누가복음 24장 47절을 근거로 회개와 죄의 용서가 복음의 전체라고 말한다. 그러기에 믿음에 대한 논의는 이 두 가지 논제 즉 회개와 죄의 용서 안에서 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칼빈의 말처럼 우리가 이 회개와 죄의 용서(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면, 사람이 믿음으로만 그리고 단순히 용서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그러나 칼빈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실제 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⁸³⁾

나) 회개의 정의

칼빈은 회개를 이해함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전체적으로 “회개”란 말로 이해하며, 믿음이 이 회심의 중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믿음이 회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곧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회개의 요소는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 이를 정리하면 이런 회개의 결과가 없다면 이는 회개가 아닌 것이다.⁸⁴⁾

82) Ibid, 78.

83) Ibid, 78-79.

이것은 루터와 웨슬리에게도 나타나는 복음주의의 대표적 공통점이기도 하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칼빈에게 있어 회개란 “죽임”과 “살림”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빈은 이 회개를 한마디로 중생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보는 유일한 목적은 원죄로 인해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개로 인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이다.⁸⁵⁾

2) 그리스도인의 생활(성화)

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동기

칼빈은 중생의 목적을 신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와 신자의 순종 사이에 조화와 일치로 보았다. 그 결과 이미 받은 자녀로서의 자격 다시 말해 칭의를 더욱 확고하게 하려는 데 있다.⁸⁶⁾ 또한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교훈의 중요한 면을 두 가지로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교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양상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본성에는 의에 대한 사람이 전혀 없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주입되고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의에 대한 열의를 가지게 된 우리가 정처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준칙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굳게 결합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입되어 그가 부르시는 곳으로 우리가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⁸⁷⁾

첫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부패와 전적무능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있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신칭의를 통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됨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결합된 삶의 근거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바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칭의의 근거도 믿음이고 또한 성도의 거룩한 삶인 성화의 근거도 전가된 의, 즉 믿음이 그 근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속

84) Ibid, 83.

85) Ibid, 87.

86) Ibid, 193.

87) Ibid, 194-195.

성이 어떤 악이나 불결과는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것을 제시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가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면 항상 이 목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⁸⁸⁾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세례를 통하여 그 정결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또 다시 타락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엡 5:26 히10:10 고전6:11 뱀전1:15,19).”⁸⁹⁾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동기를 구원 얻기 위한 자신의 공덕의 증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의 합당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인 자기부정

칼빈의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의 개념은 자기 부정이다. 칼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고전6:19) 주의 것이라면 우리가 멀리 피해야 할 오류가 무엇이며, 일생의 모든 행동을 분명히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제시한다. 이 자기부정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부정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섬기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역의 출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이다.(마 16:24 참조) 이 자기부정이 일단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면 그것은 우선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 다음에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방탕이나 나약함이나 그밖에 우리의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딤후 3:2-5 참조)”⁹⁰⁾

칼빈은 이 자기부정의 개념이 당시의 로마카톨릭이 제시한 칭의개념과 분명히 다른 것임을 명시하고 이 자기부정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건만 스콜라철학의 영향을 받은 당시 로마카톨릭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다. 칼빈은 이를 바울의 표현을 사용해서 “심령의 새롭게 됨”이라고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심령의 새롭게 됨” 안에서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심령의 새롭게 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⁹¹⁾

3) 그리스도인의 자유

88) Ibid, 195-196.

89) Ibid, 196.

90) Ibid, 203.

91) Ibid, 202.

가) 자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

루터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글을 쓴 것과 같이 칼빈도 이 자유에 대해 언급한다. 칼빈은 앞에서 바울의 표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심령의 새롭게 됨”이라고 말했음을 제시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자유의 참뜻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심령이 새롭게 됨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는 양심은 거의 아무 일도 확신 있게 행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일에 머뭇거리고 위축되며 항상 불안과 동요를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아니면 그 반대로 이를 잘못 이해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일체의 복종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방탕 생활에 뛰어들며, 또 어떤 자는 자유를 무시하고 그것이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폐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오류라고 지적한다.

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세 가지 의미

칼빈은 이신칭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 자유에 대해 언급하며 이 자유의 의미를 세가지로 말한다. 그 첫 번째는 성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의를 얻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통한 자유이다. 의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소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행위의 분량이나 한도를 측정할 수 없고, 율법 전체에 대한 채무자가 된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 제시되어질 수 있음으로 인한 자유이다.⁹²⁾

칼빈에 의하면 두 번째 이 자유는 진실로 순종을 확립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벗은 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칭의를 통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 기꺼이 순종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그는 주장한다.⁹³⁾

마지막으로 외부적인 사물에 관해서 자유함을 말한다. 이는 앞에서 소개한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나타난 왕의 비유와 같은 것이다. 칼빈은 우리가 무해 무익한 외부적인 사물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 의무에도 얽매여 있지 않은 것과 또한 그런 사물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할 수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것도 전혀 무방한 일이라고 말한다.⁹⁴⁾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자유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따라 아무 양심의 거리낌이나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92) Ibid, 394.

93) Ibid, 396.

94) Ibid, 399.

III. 18C 영국의 구원론과 존 웨슬리의 구원론

1. 존 웨슬리 신학의 시대적 배경

가. 영국 국교회의 역사

웨슬리의 출생시기인 18C가 시작될 무렵의 영국 교회의 신학은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역사적 산물이었다. 즉 로마카톨릭과 정치적인 분리와 제도적인 일치를 추구하였다. 그 신학은 새로운 교회, 왕이 다스리는 민족적인 교회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의 인정을 받는 교회(Catholic)의 지적 표현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써 태어났다.⁹⁵⁾

나. 18C 영국 지식인의 종교관⁹⁶⁾

당시 영국 대다수의 지식인들의 종교관은 이성종교인 이신론(Deism)이었는데, 이성종교란 비정통적인 종교형태의 하나, 즉 비기독교적인 종교 형태로 기독교에 비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여론 형성자인 작가와 문인에게 유행했다.

이신론을 다른 말로는 자연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이란 태어난 그대로의 상태, 즉 이성적인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성으로 진리 탐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도 종교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신론 주의자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초기에는 어느정도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으나, 17C 말에는 정통 기독교의 신앙과 예배의식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고, 개신교 분파의 신앙을 “광신”으로 취급했으며, 이성종교가 요구하는 윤리의 기본 양심을 널리 보급하고자 했다.

당시 정통파 사상가들은 이신론의 긍정적인 면을 수용하였는데, 실제로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카톨릭 전통에서는 인간의 올바른 이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들은 신에 대해 이해함에 있어서 기독교와는 다르게, 신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한 뒤로는 관여하지 않으며, 이 세상은 합리적인 자연법에 따라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신론은 완전한 무신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정거장에 불과했다. 18C말에는 이신론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적 태도가 되었다.

95) William, Cannon.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교국, 1986), 35.

96) 한국브리테니커,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제17권 (서울: 한국브리테니커, 1994), 702.

2. 18세기 영국 국교회의 구원론

가. 로마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의 영향

대륙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여파는 영국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가져왔다. 그러나 헨리 8세의 신앙은 자신이 교황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카톨릭 신앙노선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적인 분리와 교리적인 일치를 따랐던 것이다.

영국 국교회는 칭의론에 있어서 의인은 그리스도 신앙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되 죄의 고백과 사제의 사면선언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임재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중세 로마카톨릭의 칭의관과 다를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⁹⁷⁾

1539년에는 교황을 절대 최고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신앙노선은 카톨릭의 정통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필요를 느껴 「육개조령」(Six Articles Act)을 만들어 의회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곧 화체설(transubstantiation),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사용되는 성찬, 사제의 혼인 금지, 비공개 미사와 고백성사의 인정 등이었다.⁹⁸⁾

나. 청교도의 구원론과의 갈등

이신론에 빠져있던 높은신분 계층의 교회(high church)의 영국 국교회주의(Anglican Catholicism)에 반대하여 낮은신분 계층의 교회(low church)에서 청교도주의(Puritanism)가 발생했다.

청교도주의는 엘리자베스 1세 때부터 발생하여 17C말까지 지속되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운동(신 지식층)으로 시작하여 영국 국교회의 개혁에 불만을 가지고 영국교회를 정화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스위스의 칼빈주의와 손을 잡고 감독주의를 반대하며 장로주의를 주장한 일종의 민주주의로 제네바에 근거를 두고 국왕을 공격한 격렬한 국제주의(militantly internationalism)이다. 청교도주의는 회심의 필수성을 강조하며,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일치한 자만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의 구조도 “계약”사상의 구조를 가져야 한다. 즉 거룩한 공화정을 추구하며 종말사상으로 천년왕국 사상을 주장했다.

97) Philip H. Eveson, 『칭의론 논쟁』, 석기신 신호섭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1), 121~136.

98) 노로요시오,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김덕순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3), 17-18.

청교도주의의 교리 중 구원론은 알미니안과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청교도주의에서는 이중예정설을 바탕으로 인간은 값없는 은혜에 의존해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한된 속죄, 즉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속한 것이라는 것이며, 불가항력적 은혜, 즉 중생을 말하며, 이신칭의 사상을 주장한다.

칼빈의 이중예정을 요약하면 전적부패(Total Corruption of the nature of men) / 전적무능(Total Impotence),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Unconditional Election / Unconditional Reprobation), 제한적 속죄공로(Limited Atonement),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 견인(Perseverance)이다.⁹⁹⁾ 청교도주의는 이러한 교리를 근거로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다.

다. 아르미니안니즘

영국 국교회주의에 대항하여 청교도주의가 발생했다면, 영국교회는 청교도의 칼빈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아르미니우스(Arminius)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은 선택설지지자와 후택설지지자 사이의 불균형적인 대립이다. 선택설의 지도자들에 의해 신임을 받고 있던 아르미니우스는 후택설을 논박해 줄 것을 부탁받았고, 후택설의 논박을 준비하는 동안 논박하고자 했던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절대적 섭리론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가 내포된다는 것, 무가치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지한다는 것, 무수한 사람들을 희망이 없는 상태로 방치해 두고도 그들을 비난한다는 것과 더 나아가 선택되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충분한 윤리적 원리에도 근거되지 않는 거짓 확신을 부여해 줌을 알았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교리는 첫째 하나님은 만세 전에 결정하시기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기 이전에 예지를 가지고 미리 아셨다.(예지적 선택) 둘째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어 놓으셨다. 셋째 속죄 공로로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화해 공로에 참여한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믿음)를 얻을 수 있다. 넷째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 아니다. 인간은 이 은혜를 얻기 위해 준비(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펠라·세미펠라기우스의 주장에 선 것으로 인간의 가능성에 기대한 것이다. 다섯째 믿고,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여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¹⁰⁰⁾고 주장한다. 현 감리교는 아르미니우스의 교리 중 처음 세 가지는 동

99)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 12권 (서울: 기독교 교문사, 1984), 880-881.

100) Ibid, 882.

의하나 나중 두 가지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이 교리로 보았을 때 칼빈주의적 입장이 두 가지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에 관한 측면과 인간에 관한 측면에서 비판했다.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칼빈주의의 논의는 불균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와 로마 사상도 배격했다.

이러한 초기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후기에 이르러 소키누스주의자들 또는 자유주의자들이 합리적인 기질에 물들었고, 미국의 유니테리안주의적 경향에 병합되어 그 의미를 상실한 반면, 감리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전기의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전환하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도 남아 있지 않다는 것과 은총의 협동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것을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감리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성화의 가능성은 물론, 그 필연성이 명확히 강조되었다.

아르미니우스의 본래적인 입장으로 회복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18C의 복음적 부흥운동에 등장하여 영국에서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이다. 웨슬리적 유형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영국과 미국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칼빈주의적 입장들이 하나님의 공정성과 인간의 자유와 모순된다는 확신에 근거한다. 웨슬리적 유형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은총론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은 펠라기우스주의와 소키누스주의로부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가장 잘 변호하는 것이다.¹⁰¹⁾

그러면 어떻게 초기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 의미가 후기로 전환되었는지를 영국의 신학의 변천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 영국 국교회의 구원론

청교도주의(Puritanism)가 일견 승리한 듯이 보이고, 영국 교회라는 제도 자체가 영국 국민의 생활에서 완전히 근절된 것 같았으나, 다시 영국 교회의 신학이 재정립되었다. 17세기에 와서 신학체계가 구축되었는데, 리차드 후커(Richard Hooker, 1553-1600)라는 사람이 로마의 카톨릭주의와 극단적인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시도를 했음이 발견된다. 이 신학에서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주장했고, 그렇지만 교회도 역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101) Ibid, 883.

도와주는 안내자라고 말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¹⁰²⁾

영국 교회의 칭의론은 왕에 따라 신학의 흐름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에는 “믿음에 의한 칭의”가 그 시대의 구조였으나, 찰스 1세의 시기에는 “교회를 통한 칭의”가 그 시대의 특징이었다.¹⁰³⁾ 이 칭의론은 로마카톨릭주의나 칼빈주의의 위협성을 모두 회피한 것으로 볼(Bull) 감독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1661년 4월 사보이 회의에서 제정된 39개 조항은 오류가 없었으나, 로오드 감독의 사상으로 해석될 때 후기 알미니안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1573-1640) 이 칭의론의 기초는 후커에 의한 것으로 영국교회와 로마교회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열거하는데, 일치점은 원죄로 본성이 부패하여 의를 상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공적에 의하지 않고는 칭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적도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서는 칭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나 영국 교회는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는 로마교회와 의견을 달리했는데, 로마카톨릭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을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영혼에 주입되는 속성과도 같은 것이고, 이것은 선행에 의하여 증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에 반하여 후커가 보기에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으로 밖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후커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입도록 선택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자신의 동의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¹⁰⁴⁾

이처럼 초기의 영국 교회의 신학이 변하게 된 경위는 로오드와 앤드류스의 영향이 큰데, 로오드는 믿음 그 자체는 사람의 동의라고 주장했고, 앤드류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 자신이 먼저 주도권을 취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자유화된 아르미니안주의이다.

칭의(To justify)는 ‘의롭다고 칭하다’의 의미로 일종의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¹⁰⁵⁾ 필연적으로 고소당한 사람을 무죄로 석방하고, 그를 고소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그렇지만,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실제적인 죄로부터 정화되는 것을 의미하

102) William, Cannon. 「웨슬리 신학」, 37.

103) Ibid, 39.

104) Ibid, 41.

105) Philip H. Eveson, 「칭의론 논쟁」, 석기신·신호섭 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1), 99.

지 않는다면, 여전히 실제적인 죄의 생활 안에 거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가 주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사람의 도덕적 상태와 관련이 있으며 도덕적 법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 된다. 영국 교회의 신학은 이러한 법적 개념의 칭의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을 받아들였고,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공언하였다.¹⁰⁶⁾

17세기 영국 교회 신학은 이처럼 펠라기우스의 한 지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거나 이신론자들의 원리를 넘어서지 못했고, 18세기 초엽 영국 교회에 지배적이던 칭의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책임을 하나의 단일체계 안에 다 포함시켜 보고자 한 시도였다.

이것이 웨슬리가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기 전에 가진 구원관이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으로 임하는 상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고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이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될 수 없다. 행위가 포함되면 아주 작을 지라도 행위가 포함된 그 만큼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되는 것이다.

3. 웨슬리의 구원론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과 전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를 강조한다. 그러나 웨슬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구원관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의 회심간증을 통해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1738년 5월 24일 칭의와 중생을 하기 이전까지는 당시 영국 국교회의 칭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지침으로 구원 받는다는 보편적 복종을 배우며 성장하였고, 그의 삶의 목적은 구원에 있었다. 그가 이해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토머스 아캠퍼스나 윌리엄 로우의 영향으로 거룩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구원의 삶은 선행을 행함 뿐만 아니라 동기까지 순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철저히 지키려 하였으나, 칭의와 중생 이후 결국 이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결국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음을 깨닫는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로 또한 옥스퍼드대학의 저급 교수였던 웨슬리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하기 위해 미국 선교사로 떠난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 사

106) Ibid, 46.

역의 실패와 죽음의 절박한 위협 속에서 그는 불안을 느끼고 이것이 불신앙 때문인 것을 깨닫는다. 그가 이제껏 배워왔고 확신해왔던 영국 국교회의 칭의관인 “믿음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에 일치하는 행위가 있어야 칭의를 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의 한계를 경험한 것이다.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는 루터파의 한 갈래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바른 칭의관을 이해하게 된다. 웨슬리의 간증문을 보면 웨슬리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인 페터뵐러(Peter Bohler)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올바른 칭의관을 듣게 되었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결과를 눈으로 검증하면서 그는 이 이론에 동의한다.¹⁰⁷⁾ 이것이 웨슬리가 경험한 칭의와 중생은 아니다. 성경에 나타난 칭의와 중생은 인식으로 인한 지식의 동의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요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회개시키시는 은혜의 기간을 거쳐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던 올더스케이트가에 있는 한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를 위한 서문을 읽던 도중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를 체험한다. 그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가져갔다는 것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였다는 확신을 얻게 된다. 그는 회심 간증에서 칭의와 중생의 결과로 향시적인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를 제시한다.¹⁰⁸⁾

우리는 웨슬리가 칭의와 중생을 통해, 성경에 나타난 칭의와 중생 더 나아가 성화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칭 의 론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¹⁰⁹⁾이란 설교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기독교 바깥에서 말하는 정직성(heathen honest)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하는 경건의 외양을 가지는 것 그리고 거의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중요한 것으로 경건의 외양을 가지는 것에 대한 진실성(sincerity)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건을 행하는 데 있어 진실성이 결여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가에서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기 전의 자신의 모습과 또한 그렇게 거짓된 구원론에 치우친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107) John Wesley,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그 자신의 증언」, 『존 웨슬리 설교선집(1)』, 571-574.

108) Ibid, 575-580.

109)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은 1741년 7월 25일 옥스퍼드 성 마리아 교회에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 및 학생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행한 설교이다.

것이다. 웨슬리는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명시한다.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 그대로 거의 유사한 그리스도인 일뿐이다.

웨슬리는 “성서적 구원의 길”이란 설교에서 이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 설명한다.

1) 잘못된 믿음의 개념(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 이교도, 마귀, 거듭나기 전 사도들의 믿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의 형태와 정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의 형태의 첫 번째로 이교도의 믿음을 설명한다. 이교도의 믿음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동료 피조물에게 도덕적인 덕과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정성껏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도록 요구하심을 믿는 것이다.¹¹⁰⁾ 그러나 웨슬리는 이정도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잘못된 믿음의 형태의 두 번째로 마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제시한다. 이 잘못된 믿음의 두 번째 형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부지런히 찾고 또한 진실하게 살면 복을 준다는 이교도의 믿음의 형태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러한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¹¹¹⁾ 다시 말해 지적인 동의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정의하였는데, 사실 이 모습은 웨슬리가 칭의와 중생을 경험하기 이전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웨슬리는 마귀의 믿음이라고 한다.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거듭나기 전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사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웨슬리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아직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 자신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도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을 명시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셨음을 그는 지적하며 사도들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을 말한다.¹¹²⁾ 이 세 번째 잘못된 믿음의 형태는 진정한 믿음과 거의 분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믿음의 형태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거의 그리스도인”(almost christia

110) John Wesley,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선집(1)』, 346.

111) Ibid, 347.

112) Ibid, 348.

n)이라는 설교를 통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을 지적한다. ‘거의’라는 뜻은 100%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의 시작에서 단지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¹¹³⁾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또한 마귀를 제압하는 권위가 있었으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 하시는지 알지도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못하였다.

2) 믿음의 정의

웨슬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믿음에 대해 이방인, 마귀, 거듭나기전 사도들의 믿음 이 3가지를 소개한 이후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 정의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며 우리의 생명이라고, 즉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셨고, 또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이라고 여겨 이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분에게 달라붙어서 굳게 결합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¹¹⁴⁾

그는 이 온전한 믿음의 첫째 조건이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음을 인정하며 그 모든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원죄로 인한 전적인 부패와 선을 행할 만한 아무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에 대한 인정이요 그러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와지는 것의 유일한 길인 자신의 속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¹¹⁵⁾ 셋째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심의 공로를 의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심을 본받아 나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인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칭의 원리인 믿음에 대해 알아보면, 웨슬리에게 있어 칭의

113) Ibid, 「거의 그리스도인」, 265-284.

114) Ibid, “믿음에 의한 구원,” 350-351.

115) 이선희,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복음, 2002), 104.

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칭의의 믿음은 씻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의의 전가인 것이다. 또한 이 의의 전가는 총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의 총애를 상실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총애를 상실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 총애를 상실한 인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총애를 얻고 또한 지속적으로 얻는 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속적 성화의 길이기도 하다.

의의 전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다. 의의 전가는 믿는 자에게만 전가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은 마음의 결단이 아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은 사도에 의하여 ‘ελεγχος πραγματος ου βλεπομενων’ 이라고 정의 되었다. 즉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나 또는 외적 감각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됨’이다.”¹¹⁶⁾

웨슬리가 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근거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웨슬리에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대상인 인간의 영혼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

웨슬리는 이 변화를 보통적으로 인간의 육신에 일어나는 인식의 작용이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 보고 있다.¹¹⁷⁾ 웨슬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설득되어짐’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 볼 수 있는 기능인 하나님의 형상 중 ‘지’ (Understanding)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지’는 인식적인 기능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 지(Understanding)는 영혼의 현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성은 뇌의 현상이나 믿음은 영혼에서 일어난 상태임을 알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자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자명성에 설득되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칭의)이고, 이 의의 전가(Imputation)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것 중생의 상태(성화의 시작)를 그리스도의 의의 이식 (Impla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말한다.¹¹⁸⁾ 그

116) Ibid, “성경적 구원의 길,” 220.

117) Lycurgus M. Starkey, Jr., 「존 웨슬리의 성령신학」, 김덕순 역 (서울: 은성, 1994), 65.

118) 이선희, 「웨슬레 신학의 탐구」, 11-16.

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식은 성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이지 로마카톨릭이 말하는 주입된 내재적 의와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이식을 말함으로 자신을 교화의 추종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성화의 다른 표현이라고 명시한다.¹¹⁹⁾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전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계몽주의에서 사용되는 언어이자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이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으로 회복(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와 이식)되는 것이 성화의 시작이다.

3) 믿음에 의한 칭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시고 이에 우리가 설득되어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 믿음에 의한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다.¹²⁰⁾

웨슬리는 그의 “믿음의 의”라는 설교에서 이신칭의의 필요성과 행위에 의한 칭의가 배제되는 것을 설명한다. 웨슬리는 행위계약과 은혜계약을 설명하면서 이신칭의의 필연성을 제시한다. 행위계약이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원죄 이전의 인간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행위계약의 핵심은 율법은 완벽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신 뜻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것이다.¹²¹⁾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행위계약에 의거해서 거룩과 행복을 상실한 것이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기능들이 왜곡되었다. 영혼의 기능인 이해력과 의지와 정서들이 왜곡됨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 볼 수도 없고 또한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상실한 것이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전적무지와 전적무능의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전적무지와 전적무능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은혜계약이다. 이 은혜계약의 조건은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

119) John Wesley, “주 우리의 의,” 『존 웨슬리 설교선집(1)』, 183.

120) Ibid, “믿음에 의한 구원,” 351.

121) Ibid, 「믿음의 의」, 290-292.

나눔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기에 이 은혜계약에 들어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믿음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¹²²⁾

칭의의 근거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능한 상태이며 또한 하나님의 총애를 잃고 진노의 대상 다시 말해 영벌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수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제시하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인류의 대변자인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려짐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과 또한 이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¹²³⁾이 바로 이신칭의의 토대인 것이다.

4) 믿음에 의한 중생

웨슬리에게 있어 중생은 칭의의 결과이다. 칭의가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죄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이신칭의에 담겨진 의미라면, 믿음에 의한 중생은 칭의로 인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이요, 이에 따른 변화인 항시적인 평화 혹은 죄에 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 이 중생의 기초는 원죄의 교리이다. 원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영혼에 있어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또한 전적으로 타락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질적 형상과 정치적 형상 그리고 도덕적 형상으로 구분한다. 아담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이 원죄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¹²⁴⁾

중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영혼을 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영혼안에 역사하여 일으키시는 변화다.”¹²⁵⁾라고 웨슬리는 설명한다. 우리 안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 영혼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¹²⁶⁾

122) Ibid, 296-298.

123) Ibid, “믿음에 의한 구원,” 353.

124) 이선희, 「중생」, 『웨슬리 신학의 탐구』, 212-213.

125) John Wesley, “신생.” 존 웨슬리 설교선집, 1. 386.

웨슬리는 중생의 특징을 말하면서 “신생은 성화 그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사실”¹²⁷⁾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중생과 성화를 같은 것이라고 보지만 중생은 성화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웨슬리에게 있어 중생은 성화의 시작인 성화의 문과 같은 개념이다.¹²⁸⁾

마지막으로 신생이 일어 나면 어떤 자각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신생의 표징들”이라는 설교에서 이 신생(중생, 거듭남)의 자각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로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믿음의 열매는 “죄를 이기는 능력”¹²⁹⁾과 “항시적인 평화”¹³⁰⁾이고, 소망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영 또는 양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또는 우리 영에게 증거하는 것”¹³¹⁾을 설명하며, 사랑의 열매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¹³²⁾이요 또한 “그 분으로 출생된 분(예수 그리스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필연적 열매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¹³³⁾이라고 말한다. 또한 웨슬리는 “그 표징들이 너희의 영혼 안에 갖고 있지 않은 너희는 모두,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 표징들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¹³⁴⁾라고 말하며 이 표징을 받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안에 있음을 명시한다.¹³⁵⁾

나. 성 화 론

1) 성화의 원리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영혼이 의와 거룩으로 점점 새로워짐을 말하는데 웨슬리는 이것을 영혼의 내적 원리라고 말한다. 내적 기관인 영혼이 외적기관인 몸을 주장하여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웨슬리는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구분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데 원죄 상태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악행이라고 한다. 몸에서 나오는 것을 언행

126) Leo George Cox, 「웨슬리의 완전론」, 김덕순 역 (서울: 은성, 1999), 113.

127) John Wesley, “신생,” 393.

128) Ibid, 394.

129) Ibid, 「신생의 표징들」, 404.

130) Ibid, 409.

131) Ibid, 412-413.

132) Ibid, 418.

133) Ibid, 420.

134) Ibid, 430.

135) 송홍국, 「웨슬레 신학-구원론을 중심으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5), 128-129.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과 행동이다.¹³⁶⁾ 이것은 내적원리가 몸의 언행을 통해서 나온 행동을 의미한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면 그것을 선행(good works)이라고 하는 것이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 선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내적 원리가 몸을 주장해야하는 것이다. 선행은 영혼의 의와 거룩의 결과이다.

웨슬리는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중생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하는 성화를 말함과 동시에 구체적 선행을 제시한다.¹³⁷⁾ 웨슬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선행은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행위(works of piety)를 말한다. 이것은 모여 드리는 기도, 가족기도, 혼자 밀실에서 드리는 기도, 성만찬을 받는 것, 성경을 읽으며 명상하면서 탐구하는 것, 우리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금식이나 일정 음식을 삼가는 것과 같은 모든 경건의 행위를 말한다.¹³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비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이웃의 영혼을 위하는 것과 이웃의 몸을 위하는 것으로 나뉜다. 이웃의 몸을 위하는 것은 배고픈 자를 먹이기, 헐벗은 자를 입히기, 낯설은 자를 깨우기, 감옥에 있는 자를 방문하기가 있고 이웃의 영혼을 위한 것은 무지한 자를 가르치기, 어리석은 죄인을 깨우기, 미지근한 자들을 분발시키기, 동요하는 자들을 굳세게 하기, 의지가 박약한 자들을 위로하기, 유고 받는 자들을 구조하기, 또는 영혼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헌하기이다.¹³⁹⁾ 여기에서 영혼을 위한 선행은 야학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하라는 소리이며 돌보라는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웨슬리는 위에서 제시한 구체적 행동들을 선행의 필수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웨슬리가 선행을 믿음의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원인에 따른 결과 다시 말해 영혼의 회복이 원인이고 이 몸에서 나온 선행은 결과이다. 원인에 따른 결과는 필수적인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서 원인의 상태를 파악 해 볼 수 있는데 그의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특권”에서 악행이 생기는 이유를 말한다.

“ 여기서 우리는 은혜로부터 죄로 발전해가는 명백한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6) 성령이 그를 더 신랄하게 책망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길이다. 너는 이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다. (7)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유혹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8)악한 욕망이 그의 영혼 안에 시작되며 퍼져 나간다. 그러다가 결국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

136) John Wesley,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00-201.

137) <http://my.netian.com/~kpmlove/신학/구원론비교.htm>.

138) John Wesley, “성경적 구원의 길,” 230.

139) Ibid, 231.

버린다. (9) 이제 그는 외적 죄를 지을 수 있다. 주님의 세력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¹⁴⁰⁾

위의 (8), (9)을 본다면 악행을 하는 것은 믿음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세력이 다스리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있는데 행위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신학의 논리이다. 또한 믿음은 있으니 영성훈련으로 행위를 첨가하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헛된 만족을 주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는 자들의 회개”에서 이런 선한 행위가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회복’을 선한행위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2)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는 말년에 이르러 온전한 성화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표현했다. 완전이라는 용어의 사용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으나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는 감리교의 ‘위대한 보고’라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믿었다.¹⁴¹⁾

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조하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자라날 여지가 많다. 죄의 문제의 해결을 보았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모라비안 교도가 완전한 성화를 말하나, 성서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인간은 본래부터의 부패성이 남아있다.(롬7 :15-25)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게 되는 이유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불가피하다.¹⁴²⁾

나)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한계성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의미를 꼭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 한계성을 분명히 말했다. 첫째 지식이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다. 둘째 영적 무류성(無謬性)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죄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¹⁴³⁾ 웨슬리는 크리스찬들 역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결코 절대적 지식, 절대적 판단, 절대적 행실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셋째 그것이 사람을 우월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체험하면 더욱 겸손해진다. 넷째 인생의 문제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140) Ibi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447-448.

141) 웨슬리 복음주의 협의회.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 제1집 (서울 :광림, 1992), 59.

142) H. Lindstrom, 『웨슬리와 성화』, 전종욱 역 (서울: 기독교 감리회 홍보 출판국, 1962), 141~142.

143) 조종남, “웨슬리 신학과 선교,” 『월간목회』 77호 (서울:월간목회사, 2001)), 42.

그리스도인 역시 병에 걸릴 수 있고 유혹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결코 현실을 예방하는 접종이 아니다. 다섯째 그것은 정적이거나 일회적인 체험이 아니라고 했다.¹⁴⁴⁾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성격

첫째 그리스도인이 얻는 순간적인 은혜다. 즉 수양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엡2:8-9) 둘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상대적 의미에서 완전이지 절대적 완전이 아니다. 셋째 의도의 순수성이지 윤리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의존을 뜻한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거할 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 다섯째 성장해가는 체험이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향상해야 한다.¹⁴⁵⁾

라)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방법

웨슬리는 개인의 성화를 통한 교회 부흥과 사회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세가지를 권고했다. 그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다. 즉 모든 죄는 진노의 대상임을 인식하며 자신의 행위로서는 이 진노를 만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완전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것으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신적 증거를 믿으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믿음은 성화를 얻는 오직 하나의 길이다. 믿음 없이는 누구도 성화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신다. 셋째는 구하라는 것이다. 웨슬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사실이나 부지런히 이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것은 약속 실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또한 구하는 그 곳에서 그리고 그 순간에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¹⁴⁶⁾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물질적인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가 완전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욱 잘 되는 상태 즉 하나님과 일치되어 더욱 순종이 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¹⁴⁷⁾ 웨슬리는 이 때 더욱 은혜 안에서 성장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완전의 교리는 은혜안에서 더욱 성장케하는 교리인 것이다.

144) 웨슬리 복음주의 협의회.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 60.

145) Ibid, 60-61.

146) Ibid, 62-63.

147) 한광희, “John Wesley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연구”(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7-12.

IV. ‘복음주의 구원론’의 공통점

루터, 칼빈, 웨슬리가 주장하는 공통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신칭의’ 부분에서의 공통점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의 합당한 삶인 ‘성화’ 부분에서의 공통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단원부터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의 공통점을 ‘복음주의 구원론’이라 칭하겠다.

1. 칭의론에 있어서 공통점

가. 원 죄

이 논문에 나타난 복음주의 구원론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원죄와 원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다. 루터는 칭의와 중생 이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해 “인간에 관한 토론문(1536. 1. 14)”에서 ‘아담의 타락이후 확실히 인간은 그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영원한 이중적 악인 죄와 죽음 그리고 악마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또한 사로잡힌 의지는 절대로 올바른 이성을 따를 수 없고 그 결과로 세상일들에 자유 의지가 없음을 말한다’¹⁴⁸⁾ 루터는 이 주장을 통해 인간은 원죄와 그로 인한 전적부패와 전적무능을 통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선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명시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제2장의 1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율법으로 정하셨으나 범죄한 인간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이르기까지 지킨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일이다’¹⁴⁹⁾라고 말한다. 이는 원죄와 원죄의 결과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전적 무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원죄”에서 ‘인간은 모든 선을 결여하고 있고 또한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그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음과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지속적으로 악하다’¹⁵⁰⁾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인간은 타고난 부패성의 악한 뿌리로부터 악한 것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¹⁵¹⁾ 라고 말하며 원죄와 그 결과에 대해 루터와 칼빈과 같은 견해를 가진다.

이로 볼 때 원죄에 대하여 복음주의 구원론에서는 인간이 원죄로 인하여 전적

148) Martin Luther, “인간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6)』, 360-363.

14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15.

150) John Wesley, 『원죄』, 『존 웨슬리 설교선집(1)』, 128-129.

151) Ibid,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01.

으로 부패한 것과 또한 전적으로 타락함을 주장하며, 그 결과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선을 찾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지함과 무능한 상태에 있음을 명시한다.

나. 하나님의 의(하나님의 구원계획)

두 번째는 이렇게 원죄로 인해 선을 찾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이며,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를 인하여 고민하였으나 회심 후 그는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하이델베르크 논제”(1518.4.26)에서 그는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보이고 명백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영광의 신학은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나 십자가의 신학은 사물을 사실 그대로 부르며, 십자가의 신학이 없는 사람은 가장 선한 것을 가장 나쁘게 오용하게 된다.’¹⁵²⁾라고 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한다. 그의 신학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임을 명시한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 15장 8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며 실현된다.”¹⁵³⁾고 말하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약속의 실현이며 구원의 길이라고 명시한다.

웨슬리는 그의 신약성경 주해에서 로마서 3장 21-26절을 주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두 가지를 모두 보이신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다.’¹⁵⁴⁾라고 해석한다.

위 내용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원죄로 인해 전적부패와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된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제시하신 기준에 일치 하시면서(하나님의 의),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신 것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 복음이며, 복음(약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내심이자, 완성이신 예

152) Martin Luther, 「하이델 베르크 논제」, 「루터선집(5)」, 247-248.

153)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58-59.

154) John Wesley, 「웨슬리 총서」 제5권 (서울: 웨슬리 사업회, 1983), 397-398.

수 그리스도의 ‘속죄공로’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결혼의 비유에서 ‘믿음은 영혼과 그리스도를 마치도 신부와 신랑을 결합시키듯이 결합시킨다. 또한 이때 그리스도와 영혼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다.’¹⁵⁵⁾라고 말함으로써 이 신비스러운 연합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의와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가져 가시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루터는 이 믿음의 연합에는 성령이 동반됨을 강조한다.¹⁵⁶⁾

칼빈은 믿음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연합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만이 그의 은혜를 입는데, 이 연합함은 우리가 그의 살중의 살이 되며 그의 뼈 중의 뼈가 되어 그와 하나가 되는 저 결혼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만 우리와 결합하신다.’¹⁵⁷⁾라고 말하며 이 연합의 의미를 설명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에서 믿음을 정의하며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신 그 분에게 달라 붙어서 굳게 결합된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¹⁵⁸⁾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내심이자 의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에 거하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길이며 또한 연합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임을 나타낸다. 또한 이 믿음을 통한 연합은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루어짐을 복음주의는 가르치는 것이다.

라. 믿음에 대한 이해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근거인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다. 중세 로마카톨릭은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 혹은 맹신으로 지칭했고 200년 후 영국 성공회는 이는 복음에 대한 이성적 동의라고 지칭했는데 복음주의에서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믿음의 정의

루터에게 있어 믿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것은 일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사실 루터의 주된 성경이해의 관점이기도 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의와 하나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15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루터선집(5)』, 309-310.

156) Ibid, 301.

15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11.

158) John Wesley,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러 설교선집(1)』, 351.

자유”에서는 ‘말씀은 우리를 동화시킨다.’¹⁵⁹⁾라고 말하며 성찬에 대한 논쟁서인 “이것은 내 몸이니라”(1527)에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를 근거로 하나님 말씀의 역동성에 대해 설명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일을 수 없이 이루신다. 실제로 다음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 그것은 믿음을 낳고 강하게 해주며.....”¹⁶⁰⁾라고 말하며 믿음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낸다.

칼빈도 믿음을 카톨릭의 맹신에 반대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¹⁶¹⁾ 혹은 ‘보다 차원 높은 지식’¹⁶²⁾이라고 말한다. 또한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라고 하며, 이 선생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성령의 중심 되는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다.’¹⁶³⁾라고 명시한다. 칼빈이 말하는 믿음은 성령의 조명 혹은 성령의 스승 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 되어지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란 설교에서 믿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며, 사람들의 이전의 범죄들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으며, 그 결과 내가 바로 내가 지금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 또는 확신이다.”¹⁶⁴⁾ 라고 정의한다. 웨슬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것에 설득되어져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우리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복음주의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일반적인 덕목 그리고 맹신 또는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인 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셔서 이에 설득되며 또한 이를 확신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믿음의 근거

159)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07.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논고」, 12-13.

160) Martin Luther, “이것은 내 몸이니라” 「루터선집(7)」, 389.

16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18.

162) Ibid, 35.

163) Ibid, 12.

164) John Wesley,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존 웨슬리 설교선집(1)」, 208-209.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통해서 믿음의 근거가 말씀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에 수 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것이 루터 칼빈 웨슬리가 지칭하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 먼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내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다른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무엇이 말씀이며 이 말씀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즉,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영화롭게 되신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¹⁶⁵⁾라고 명시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의와 성결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나타낸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자신을 나를 위해 주셨으며, 그 결과 내가 바로 내가 지금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사실”¹⁶⁶⁾ 이라고 말한다.

3)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완전성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한것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노력이 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에서는 단호히 구원에 있어 믿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제시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왕의 비유”를 통해 이 믿음의 완전성을 “그렇다! 믿음만이 구원을 위하여 충족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그 신앙 자체의 자유의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는 믿음 외에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¹⁶⁷⁾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미 형성된 믿음은 없다’라고 명시하며 “그들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한 바울의 말을 자주 인용하고 역설한다. 그들은 믿음에서 사랑을 제거함으로써 믿음을 기형으로 만들며 이 구절에서 바울이 ‘믿음’을 무슨 뜻으로 쓰는지 생각지 않는다.”¹⁶⁸⁾라고 말한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16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03-304.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8.

166) John Wesley,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209.

167)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3.

의미가 있는데 은사로서의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혼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미형성된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 믿음만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이 믿음의 완전성에 대해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다. 즉, 믿음만으로 칭의 받기에 충분하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가 그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없든지 관계없이 칭의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누구도 믿기 전에는 칭의 되지 않는다. 누구나 믿을 때 칭의 된다.”¹⁶⁹⁾ 라고 말하며 믿음의 충족성을 설명한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완전하기에 행위는 배제된다.

다. 칭의를 믿음에 있어서 행위의 배제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행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 행위에 대해서 복음주의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알아보고자 한다.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비록 인간의 업적들은 언제나 매력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업적 자체는 죽을 죄인 것과 같을 따름이다.”¹⁷⁰⁾라고 명시하며 인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와 다를 바 없다고 명시한다. 그 이유를 “자유의지는 타락 이후 오직 그 명칭뿐이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한 그것은 죽을 죄를 범하는 것이다.”¹⁷¹⁾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로마카톨릭이 행위가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중생의 결실이라면 행위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칼빈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성화와 의는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의롭다하는 힘을 믿음에 돌릴 때에는 영적인 행위까지도 중요시 되지 않는다.”¹⁷²⁾라고 말하며 칭의 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행위를 할 수도 없거니와 이 영적인 행위 까지도 배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의(義), 다시 말해 행위에 대한 값을 요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었다고 해

168)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27.

169) John Wesley, “성경적 구원의 길,” 224.

170) Martin Luther, 「하이델베르크 논제」, 247.

171) Ibid.

172) Ibid, 270.

도, 이 모든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¹⁷³⁾라고 말하며 칭의에 있어 그 모든 행위를 배제한다. 또한 칼빈의 때와 같이 구원을 이름에 있어 믿음으로 칭의 받고 행위로 성화한다는 로마카톨릭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웨슬리는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이다.”¹⁷⁴⁾라고 명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믿음”임을 명시한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행위의 배제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배제하는 이유를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무능과 전적무지로 본다. 그러기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이 오히려 죄에 죽을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인 것이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며 또한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바. 몸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변화로서의 칭의와 중생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중생(거듭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작용인지 알고자 한다. 당시 로마카톨릭은 1차 칭의와 2차 칭의 예를 들어 성만찬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통해 실질적인 몸의 변화를 가르쳤으나,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이 칭의는 영혼의 변화임을 명시한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칭의는 “영혼이 오직 믿음만을 통하여 행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진리답게 되고, 화평하게 되며, 자유하게 되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¹⁷⁵⁾라고 말하며 이 칭의는 육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인하여 부패되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은 칭의를 설명함에 있어 “기독교강요”에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를테면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¹⁷⁶⁾ 라고 말하며 또한 중생을 표현할 때, “거룩하신 성령

173) John Wesley, “성경적 구원의 길,” 225.

174) Ibid, 226.

17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07.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논고」, 12.

17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62.

이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키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감정으로 그의 거룩함에 깊이 잠길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새로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¹⁷⁷⁾라고 말하며 칭의가 영혼의 변화임을 설명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서와 같은 영적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다.”¹⁷⁸⁾라고 말하며 이 변화는 육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과 영혼에 일어나는 영적 생명의 회복임을 명시한다.

왜 이렇게 이신칭의와 중생에 대하여 오해와 말이 많은가 하면 이 변화가 영혼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며 실제로 영혼의 변화함을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영혼의 변화인 칭의와 중생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세 로마카톨릭은 영혼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몸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지금도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중세 로마카톨릭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아야 한다.

사. 이신칭의의 결과인 자의식적 중생

우리는 이 이신칭의와 칭의의 결과인 중생을 통해 영혼의 변화를 가질 때 우리가 이를 느낄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자각증상이 일어나는가? 또한 일어난다면 어떤 자각증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한 복음주의의 공통된 답변은 구원받은 자는 자각적인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루터는 칭의와 중생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보아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체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¹⁷⁹⁾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일반적인 덕목으로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믿음의 힘과 변화를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임을 명시한 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감미로움을 우리가 참으로 느끼며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생길 수 없다.”¹⁸⁰⁾ 또한 칼빈은 “우리가 평온한 마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는 바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 답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만 생길 수

177) Ibid, 86.

178) John Wesley, 「믿음에 의한 칭의」, 「존 웨슬리 설교선집(1)」, 319.

179)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선희 역 (미간행번역원고), 1.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루터선집(5)」, 301.

18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37.

있다.”¹⁸¹⁾라고 말하며 우리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의 자각 다시 말해 칭의와 결과로서 일어나는 중생에 대한 자각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신생의 표징들”이라는 설교에서 신생(중생, 거듭남)의 자각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로서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믿음의 열매는 “죄를 이기는 능력”¹⁸²⁾과 “항시적인 평화”¹⁸³⁾이고, 소망의 열매는 “우리 자신의 영 또는 양심의 증거”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또는 우리 영에게 증거하는 것”¹⁸⁴⁾을 설명하며, 사랑의 열매는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¹⁸⁵⁾이요 또한 “그 분으로 출생된 분(예수 그리스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필연적 열매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¹⁸⁶⁾이라고 말한다. 또한 웨슬리는 “그 표징들이 너희의 영혼 안에 갖고 있지 않은 너희는 모두,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상관없이, 그 표징들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¹⁸⁷⁾라고 말하며 이 표징을 받는 것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함과 이를 자각함을 말한다.

2. 성화론에 있어서 공통점

루터와 칼빈을 신앙 지상주의자로 오해하거나, 웨슬리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실천적 신학을 제시했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루터, 칼빈, 웨슬리가 공통되게 주장한 것들이 무엇이며, 이들이 정의하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화의 필연성과 성화의 방식

첫 번째 루터는 “믿음이 모든 것을 다하고, 믿음 하나만으로 경건에 이르는데 충분하다면, 왜 선행을 하라는 명령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그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내적이며 영적인 인간이었다면, 실제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¹⁸⁸⁾라고 대답한다.

181) Ibid, 37.

182) John Wesley, 「신생의 표징들」 「존 웨슬리 설교선집(1)」, 404.

183) Ibid, 409.

184) Ibid, 412-413.

185) Ibid, 418.

186) Ibid, 420.

187) Ibid, 430.

188)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3.

또한 루터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한 장래의 생명에서 완성될 그것에 있어서 이 선행을 단지 시작하여 전진해야 한다’¹⁸⁹⁾라고 명시하며, 우리의 성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내적이며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까지 자라는 것인 성화는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 칼빈은 이 거룩한 실제 생활의 중요성과 또한 이 생활이 필연적임을 주장하는데, “사람이 믿음으로만 그리고 단순히 용서에 의해서만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경우가 더욱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거룩한 실제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분리될 수 없다.”¹⁹⁰⁾라는 것과 또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 하는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¹⁹¹⁾라고 말한다. 이는 칭의 이후에 일어나는 거룩한 실제 생활인 성화에 대해서 루터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터와 같이 칼빈도 성화의 필연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루터와 마찬가지로 이 성화가 일회성으로 발생하며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회개가 며칠 동안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칼빈은 “그들은 경박한 생각으로 회개를 겨우 며칠 동안으로 제한하나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회개를 계속해야 한다.”¹⁹²⁾라고 대답한다. 칼빈에게 있어 회개는 믿음으로 인한 중생 혹은 중생의 결과에 따른 돌이킴과 거룩한 삶이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인 성화가 점진적이며 지속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 번째 웨슬리의 경우이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든 진정한 믿는 자들은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의 존재로부터도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죄의 존재는 그들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¹⁹³⁾라고 주장하며 본성의 부패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기에 악을 버리고 힘써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필요성을 부인할 때에 웨슬리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안에서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다.”¹⁹⁴⁾라고 말하며 칭의와 중생 이후에도 죄가 남아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물론 제어된 상태로이지만 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성령에 대항하여 전쟁을 수행한다. 그런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7.

189) Ibid.

190)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78.

191) Ibid, 79.

192) Ibid, 80.

193) John Wesley,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457.

194) Ibid.

만큼 더 많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모든 열심을 다 사용하자”¹⁹⁵⁾라고 말하며 우리가 칭의와 중생 이후에도 남아있는 죄에 대항하여 모든 열심을 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말한다. 이는 힘써 성화를 이루어야 할 필연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구들에 대해서 날마다 싸워야 하며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칭의와 중생 이후에 “그때로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우리의 머리아신 그분 안에서 성장한다.”¹⁹⁶⁾라고 말하며 중생이후 성화가 시작되며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아감을 명시한다. 또한 웨슬리는 “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에 이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성숙을 허용치 않을 만큼 완벽한 완전은 없다라고 명시한다.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아무리 높은 정도로 성숙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만 하며, 그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날마다 개선되고 향상되어야만 한다.”¹⁹⁷⁾라고 말하며 이 성화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점진적이며 지속적임을 명확히 제시한다.

또한 웨슬리는 이 점진적 성화가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순간적이며 점진적 성화’란 용어를 사용한다. 성화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점진적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 순간에서 만큼은 변화시키는 능력인 믿음에 의한 것이기에 순간적이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믿는 자의 회개”에서 “만약 그러나 두 번째 변화(second change)가 없다면, 만약 칭의 이후에 있는 그런 순간적으로 견져내시는 것이 없다면, 만약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 이외에 다른 역사가 없다면(물론 하나님의 점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¹⁹⁸⁾라고 말하며 믿음에 의해 일어나는 순간적인 성화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색다른 이론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 지금까지 보아왔고, “성화의 근거”라는 단원에서 자세히 말하겠지만 루터, 칼빈, 웨슬리는 인간의 행위로 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 성화함을 주장한다. 이 믿음에 의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순간적이다. 또한 그것이 매일 자

195) Ibid, 480.

196) Ibid, “신생,” 394.

197) Ibid, 「그리스도인의 완전」, 526.

198) Ibid, “믿는 자들의 회개,” 501-502.

라야 하기에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혹자들은 웨슬리가 신인협동설을 주장했으며, 순간적 성화를 주장했다라고 주장한다.¹⁹⁹⁾ 그러나 신인협동설과, 믿음을 인한 성화를 의미하는 것인 순간적 성화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웨슬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학문적 무지인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믿음으로 인한 성화는 엄밀한 의미에서 웨슬리가 말한 대로 순간적이며 점진적 성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루터, 칼빈도 믿음으로 인한 성화를 말할 때 같은 의미로 설명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화의 의미

루터는 성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화의 필연성에서 밝힌 바와 같이 칭의의 결과인 성화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있음을 명시한다. 루터는 “육신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들은 인간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섬길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²⁰⁰⁾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루터에게 있어 성화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됨과 동시에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칼빈도 또한 단순히 중세 로마카톨릭의 주장과 같이 선을 쌓아 의에 이르는 개념인 선행을 성화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화의 개념은 율법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충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를 확정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길 것이다.”²⁰¹⁾라고 말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또한 칼빈에게 있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199) 김홍기,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신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1),”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12), 107.

200)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8-319.

20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III』, 203.

만을 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화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세 번째 웨슬리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며 사는 삶, 내지는 윤리적 선행을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웨슬리도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에서 성화에 있어서 구체적 선행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행위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자비의 행위로 나누어 언급한다. 그러나 웨슬리에게 있어 성화의 삶은 “그 분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로 침몰할 때, 그 말들은 강렬하고 깊은 의미로 채워지게 된다. 그 때 비로소 그 분의 전능의 은혜가 그 분에게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파멸하시고, 그러면 모든 기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된다.”²⁰²⁾라고 말하며 성화에 있어 육적 자아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육적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파멸되며,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는 상태를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 성화의 근거

첫 번째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두 번째 부분인 ‘외적 인간에 관하여’란 글에서 선행을 행하는 근거에 대해 밝히고 있다. 루터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어떤 선행이 있을 수 있기 전에 먼저 본질(substance) 혹은 사람 자체가 선행해야 하며, 또한 선행이 선한 사람을 따르고 그에게서 나와야 한다.”²⁰³⁾라고 말한다. 이로 볼 때 선행은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거룩해져 가는 과정인 성화의 열매이다. 또한 이는 반드시 사람 자체 혹은 본질이 선행된 결과로서 그 본질의 선함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란 선하게 된 사람의 열매라고 명시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행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루터는 ‘사람이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행위로써 시작하지 말고, 인격을 선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시작하라’²⁰⁴⁾고 말한다. 또한 그 이유를 “그것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며 불신 외에 아무것도 사람을 악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²⁰⁵⁾라고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도 성화의 근거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동기를 설명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의 두 가지 양상을 말한다. 첫 번

202) John Wesley, “믿는 자들의 회개,” 514.

203)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20.

204)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8.

20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21.

째는 칭의인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됨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화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결합된 성도가 그의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²⁰⁶⁾ 여기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하나님과 결합됨을 성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성화의 근거가 바로 칭의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지체인 우리 자신에 오점이나 결점을 만들어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이신 것, 다시 말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나타낸다.

세 번째 웨슬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웨슬리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성화의 근거가 믿음임을 밝힌다. 지금도 그런 해석이 많지만 웨슬리 당시에서도 사람들은 웨슬리가 믿음으로 칭의됨과 행위들으로써 성화된다고 가르친다고 믿었다.²⁰⁷⁾ 그러나 웨슬리는 이런 견해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대답한다. 웨슬리는 ‘성경적 구원의 길’이란 그의 설교에서 “믿음이 칭의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화의 조건이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밝힌다. 사람들은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웨슬리가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삶인 성화를 강조함에 있어 행함으로 성화를 완성한다고 가르친다고 믿었다. 그러나 웨슬리는 믿음을 성화의 유일한 조건으로 그리고 충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웨슬리에게 있어 성화란 영혼이 의와 거룩으로 점점 새로워짐이다. 웨슬리에게 있어 성화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적기관인 영혼이 외적기관인 몸을 주장하여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웨슬리는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구분한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서 원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한다. 원죄 상태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악행이라고 하며 또한 몸에서 나오는 것을 언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말과 행동이다.²⁰⁸⁾ 이것은 내적원리가 몸의 언행을 통해서 나온 행동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웨슬리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하며 오직 믿음으로 성화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웨슬리에게 있어 오직 믿음만이 칭의와 성화에 있어 유일하며 충분한 조건이다.

웨슬리의 성화에 대해서 김득중 총장은 웨슬리가 루터나 칼빈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받아 들이기는 했지만,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달리 칭의,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에만 관심하

206)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195.

207) John Wesley, “성경적 구원의 길,” 226.

208) Ibid,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200-201.

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의인화(義人化)에 관심하고 있다²⁰⁹⁾라고 말하며 그 근거를, 웨슬리는 의의전가(Imputation of righteousness extra nos)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의를 심어주기” (Impartation of righteousness in nobis)를 주장한 것으로 삼는다.²¹⁰⁾ 김득중 총장은 믿음으로 인해 칭의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심기어져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 내재적 의가 생겼고, 그 순간부터 자기 의지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홍기 교수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인간의 자유의지적 응답을 강조하는 복음적 신인협동설(Evangelical synergism)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의 설교 “主, 우리의 의”에서 웨슬리가 주장한 내재적 의가 로마카톨릭의 주입된 의와 같은 개념으로 인간의 행위와 공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자신이 주장한 내재적 의를 설명한다.

“ 그러나 너는 내재적(inherent) 의를 믿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내재적 의를 믿는다. 그 적절한 위치에서 나는 그렇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의 열매로서의 내재적 의를 나는 믿는다. 전가된 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 의에 뒤따르는 결과로서의 내재적 의를 나는 믿는다. 즉, 나는 하나님이 의를 전가하신(imputed) 모든 사람에게 의를 [이식하듯이] 심으신다(implants)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의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화가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즉,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칭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화하신다.”²¹¹⁾

웨슬리는 의의 주입 혹은 이식됨으로 인해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의 열매로서의 내재적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설교의 뒷부분에서 “자신을 교황추종자 또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적대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명시하며 자신은 다른 종교개혁자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처럼 믿음으로써 내적 및 외적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²¹²⁾라고 하며 믿음으로 칭의하며 성화하는 종교개혁신앙에 있음을 명시한다. 또한 내재적 의 혹은 이식되는 의에 대하여 “단지 표현의 차이만이 있는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차이들이 [그 배후에]있는 것인가? 단지 하나의 특별한 표현 방식을 더 자주 써야 하느냐 아니면 덜 자주 써야 하느냐에 대하여

209)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 주체강연2,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임원대회 자료집, (2001. 4. 2~4, 경주), 4.

210) Ibid.

211) John Wesley, 「주, 우리의 의」, 173-174.

212) Ibid, 182.

논쟁하고 있을 뿐이다.”²¹³⁾라고 하며 단지 믿음으로 인한 성화에 대한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웨슬리는 주입되거나 이식된 의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며 믿음으로 인한 성화, 즉 구원 받은 자의 합당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총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복음적 신인협동설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 성화의 중심개념 비교

성화의 공통점의 마지막 단원인 성화의 중심개념에서는 루터의 성화의 중심개념이자 성화 완성의 목표인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칼빈이 제시한 ‘자기부정’ 그리고 웨슬리가 제시한 ‘그리스도의 완전’이 같은 의미인 것을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루터는 실제적 성도의 거룩한 삶을 중요시 하는 것과 이 성화의 삶이 날마다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루터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이다.”²¹⁴⁾라고 말한다. 루터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루터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내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이웃에 줄 것이다. 나는 이웃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²¹⁵⁾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이다.”란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사 성부의 모든 뜻에 복종하사 죄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근거(하나님의 의의 완성)로, 이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또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람들의 종이 된 자의 삶을 살겠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적인 상태로 되겠다는 의미도 아니며 또한 예수의 인성적 사역에만 초점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인 복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된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유를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내가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¹⁶⁾라고 밝히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칭의를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고

213) Ibid, 183.

214)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3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27.

215) Ibid, 326.

216) Ibid, 326.

있다.

두 번째 칼빈의 성화의 중심개념은 ‘자기부정’과 자기부정의 일부분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한다. 칼빈은 자기부정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혜와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²¹⁷⁾라고 말하며 자기 부정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상태요 성령의 전적인 이끌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그의 지혜와 뜻에 전적으로 주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불렀다. 이로 볼 때 칼빈주의자들이 비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칼빈이 말하는 ‘자기부정’은 같은 개념이다.

마지막은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다. 이 완전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 장이가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결코 실현되지 않는 말씀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 표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²¹⁸⁾라고 말하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임을 명시한다. 이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에 대한 개념은 루터에게도 같이 나타난다. 만약 루터가 이 완전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그는 그의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한 ‘인간에 관한 토론문’(1536. 1. 14)에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불공평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들을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²¹⁹⁾라고 명시한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이루어짐을 확신했기에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 동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웨슬리 신학의 중심개념이다. 그렇다고 이 완전의 개념은 철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개념의 완전이 아니다. 웨슬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해 오고 있는 것 같이) 무지나 실수나 인간적

21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202.

218) John Wesley, 『그리스도인의 완전』, 『존 웨슬리 설교선집(1)』, 516.

219) Martin Luther, 『인간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5)』, 363.

한계나 유혹으로부터 예외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실로 거룩을 의미하는 하나의 다른 표현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나 거룩이나 동일한 한 가지를 의미하는 두 가지 표현일 뿐이다.”²²⁰⁾라고 말하며 이 완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웨슬리에게 있어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용어의 의미는 “그들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²²¹⁾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상태이다. 이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기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루터가 말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내 자신을 하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이웃에 주는 것이요, 나는 이웃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하고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칼빈이 말한 자기부정은 자만이나 교만이나 허식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게 되며 또한 탐욕과 욕망, 방탕과 나약함, 그리고 그 밖에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악들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삶인 것이다. 루터, 칼빈, 웨슬리의 성화의 중심개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불가능하다면 칼빈의 죄악들을 전혀 허용치 않는 ‘자기부정’도 불가능하며 또한 루터가 말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을 위해 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주장들을 통하여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나 ‘자기부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성경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0) John Wesley, 「그리스도인의 완전」, 525.

221) Ibid, 557.

IV. ‘복음주의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견해

이신칭의의 교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오해되어 다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생겼다. 그러나 이런 오류는 새로운 것이기 보다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개혁의 대상이었거나 이단이라고 정죄되었던 잘못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주장된 칭의 교리에 관한 주장이 시간이 흘러 심지어 기독교내에서도 본질적인 믿음의 조향으로부터 점차 이탈해 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 믿음의 근본적인 조향에 점점 무관심해지고,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오류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책임의 강조와 자의에 대한 신뢰에서 온 신인협동설이며, 또 하나는 방종 즉 율법폐기론이라는 오류이다. 이것은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한 의미를 망각하게 되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오류는 개신교라고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 이 단원에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를 앞에서 제시한 복음주의의 공통점을 근거로 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의 복음주의자 중에는 로마카톨릭교회의 모든 비 성경적인 교훈을 받아들이기로 맹세하고 또한 여러 복음주의 단체로부터 로마카톨릭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²²²⁾ 그러나 그들이 결코 원문서에서 주장한 것들을 다시 철회하지 않는 것을 현재 로마카톨릭의 요리 문답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오직”이라는 의미, 즉 믿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톨릭의 신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돈 카스(Don Carson)는 “물론 이후 세대에서 훨씬 확장되었던 공적(공로)의 신학을 말하는 것이 부적당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²²³⁾ 라고 주장하며 로마카톨릭의 공로 신학을 긍정한다. 또한 감신대의 김득중 총장은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현 기독교가, 이렇게 윤리가 무너졌고 그 해결점으로 카톨릭 신학이 말하는 행위를 강조해야 한다²²⁴⁾고 말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에서 이탈하고 있고, 무지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222) Philip H.Evenson, 「칭의론 논쟁」, 142.

223) Ibid, 191.

224)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 주제강연2, 1.

것이다.

복음주의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재와 다를 바 없는 중세카톨릭 신학, 특히 그들의 구원론이었고, 또한 로마카톨릭의 교리적 영향 속에 있던 영국국교회의 구원론이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세례를 받을 때 사람에게 주입되어 본성의 변화가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포함된 구원관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외부적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지는 칭의와 칭의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것임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류로 빠지기 시작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생긴 오류인 것이다.

1. 율법폐기론

전가된 의와 믿음에 의한 칭의가 모두 선행을 파괴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전가된 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던 사람들을 모두 율법폐기론자라고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폐기론자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의미가 오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혹자는 종교개혁자들을 율법폐기론자와 신앙지상주의자라고 비판하지만²²⁵⁾ 율법폐기론자의 칭의교리는 종교개혁자의 칭의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율법폐기론은 종교개혁의 산물도 아니며, 또한 발전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율법폐기론과 종교개혁자 사이에 확연하게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그들은 전가의 본질과 결과가 달랐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우리의 죄가 마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죄인으로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실제로 가장 완전하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그 어

225)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주제강연2, 4-5.

면 죄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한 본질과 결과가 다르다. 그들은 이 연합을 모든 신자들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기에 모든 면에서 죄가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복음서에 있는 율법에 대한 차이이다. 그들은 이 율법을 따르는 삶 자체를 부인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가 의를 가져다주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인지 변화된 삶의 법률과 규칙으로서의 율법인지 확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칭의를 죄의 사면과 하나님의 용인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얻게 해주는 증거 혹은 선언으로 생각한다.²²⁶⁾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는 율법폐기론자가 말하는 확신의 증거 혹은 선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면과 하나님의 용인을 얻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대한 심오한 경외심과 죄에 대한 확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 오는 회개에 이르는 경건한 슬픔, 죄 사면을 위해 그리스도를 늘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징계를 마땅히 받으려는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다.²²⁷⁾

이 율법폐기론의 기원이 마틴루터의 가르침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카톨릭의 공로주의에 대항하여 율법을 마치 신자들이 반드시 적으로 간주하고 다루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배격하는 듯이 보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²²⁸⁾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가 배제한 것은 행위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을 배격한 것이지, 율법과 행함 자체를 배격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합당 삶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감신대 김득중 총장은 “마틴루터에서 비롯된 종교 개혁 신학 전통의 ‘신앙 지상주의’ 혹은 ‘바울 지상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반발은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나타났다.”²²⁹⁾라고 주장하는 것과 또한 “루터는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고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 제일주의 혹은 신앙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226) Ibid. 186.

227) Ibid, 187.

228) Ibid, 184.

229)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주제강연2, 4.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성서관에서도 아주 중요한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²³⁰⁾라고 제시하며 루터를 신앙 제일주의자 혹은 율법폐기론의 근원으로 간주한다.

또한 협성대의 김영일 교수는 “웨슬리 당시의 많은 루터주의자들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신의 단독수행설을 주장하여,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의 무능과 무참여를 말했지만, 웨슬리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함으로써 신인협동설을 주장했다.”²³¹⁾라고 말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또한 웨슬리가 중요하게 말한 “오직 믿음으로 칭의 받고 믿음으로 성화한다”는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신인협동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복음주의에서는 이러한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주장에 대하여 칭의에 대한 성화의 필연성과 율법의 완성의 의미에서의 성화를 제시한다. 성화의 필연성에 대해서 루터, 칼빈, 웨슬리는 성화의 필연성과 성화는 인간의 행위로 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 성화함을 주장한다. 이 믿음에 의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기에 순간적이다. 또한 그것이 매일 자라야 하기에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또한 복음주의는 성화의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 칭의의 결과인 성화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넘어서 있음을 명시한다. 김득중 총장이 율법폐기론자라고 비방하는 루터는 “육신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많은 선한 행위를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들은 인간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섬길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²³²⁾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루터에게 있어 성화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만물의 주가 됨과 동시에 억압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자발적인 사랑으로 행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주의가 제시하는 믿음으로 인한 성화의 삶인 것이다.

230) Ibid, 5.

231) 김영일, “웨슬리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협성신학 논총』 웨슬리신학과 오늘의 교회 (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154.

232) Martin Luther,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5.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8-319.

2. 신인협동설

복음주의 구원론에 대한 또 다른 오류는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며, 또한 인간의 능력과 이성의 작용을 신뢰하는 신인협동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 당 시에서부터 있었고 종교개혁시대를 거쳐 소시니안주의(Socinian)로 발전했다. 소시니안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시니안의 사상은 단지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신성과만 관계되거나 또는 부정적인 사상이라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소시니안의 칭의 교리는 죄인들이 그들 자신의 회개와 개심을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면과 용인을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²³³⁾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로 변형시켰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단순한 귀감으로 변질시켰다. 다시 말해 소시니안주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 값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쳤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소시니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감리교단에서 문제시 되었던 박익수 교수의 논문 “Πιστις Του Χριστου 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에서 그는 먼저 믿음을 순종이라고 정의하고 Πιστις Του Χριστου에서 Του를 대상의 속격(그리스도를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으로 해석하지 말고 주체의 속격(그리스도의)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²³⁴⁾ 다시 말해 먼저 박익수 교수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정의한 것을 근거로 구원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종교개혁자들과 교회가 이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잘못 해석해 왔으나, 자신이 제시한 주장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³⁵⁾ 박익수 교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나타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나타내시는 모범이 되심과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그의 죽음과 생명을 공유하는

233) Ibid, 189.

234) 박익수, “Πιστις Του Χριστου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호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2001), 89-90.

235) Ibid, 90.

것은 바로 ‘그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²³⁶⁾라고 정의하며 구원이 순종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러나 박익수 교수의 이론은 원죄와 원죄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의를 자비로 바꾸어 놓고 또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단지 모범으로 보는 오류로 판명난 소시니안의 과정을 답습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박익수 교수나 소시니안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로마카톨릭의 공로주의 혹은 신인협동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원죄’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인간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던지 아니면 세미펠라기우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반을 이루시고 인간이 협력해서 반을 이룰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잘못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김홍기교수는 웨슬리가 “복음적 신인협조설 곧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할 때에 그 은총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적 응답과 참여에 의해 구원이 완성됨을 강조했다.”²³⁷⁾라고 하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100% 인간 100%의 복음적 신인협동설을 말하나 그의 주장은 웨슬리가 오직 믿음으로 칭의하며 믿음으로 성화한다고 말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완성에 위배되며, 그의 이론은 펠라기우스 혹은 세미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의 참여를 주장하는 복음주의 구원론의 오류인 신인협동설에 앞 단원인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 오류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며 이해했는가이다. 우리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통해 복음주의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일반적인 덕목 그리고 맹신 또는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친히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셔서 이에 설득되며 또한 이를 확신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위 구원과 신인협동적 구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이나 지적인 동의로 아는 사람들은 행위구원이나

236) Ibid, 125.

237) 김홍기,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신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1),” 90.

신인 협동적 구원을 말할 것이나,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위 구원을 배제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믿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불완전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의 노력이 첨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복음주의에서는 단호히 구원에 있어 믿음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제시한다.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위하여 충족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신앙 자체의 자유의 능력과 주권을 행사하는 믿음 외에 아무 것도 필요치 않다.”²³⁸⁾라고 설명하며 칼빈은 ‘미 형성된 믿음은 없다’라고 명시한다.²³⁹⁾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 믿음만으로 완전하다는 의미이다. 웨슬리는 이 믿음의 완전성에 대해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다. 즉, 믿음만으로 칭의 받기에 충분하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가 그 이외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없든지 관계없이 칭의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해서 어떤 누구도 믿기 전에는 칭의 되지 않는다. 누구나 믿을 때 칭의 된다.”²⁴⁰⁾라고 말하며 믿음의 충족성을 설명한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구원에 관해 가르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충족성과 행위의 배제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배제하는 이유를 원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무능과 전적무지로 본다. 그러기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것이 오히려 죄에 죽을 죄를 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뿐인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며,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 구원 얻은 성도는 가치 없고 저주받은 인간인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비를 통하여 의와 구원의 모든 부요함을 주셨음을 깨달으면, 이 사실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는 이웃에게 일종의 그리스도로서 우리 자신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이것을 믿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나온 이웃 사랑의 최고로 생각한다.²⁴¹⁾

238) Martin Luther, “크리스찬의 자유,” 313.

239) John Calvin,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27.

240) John Wesley, “성경적 구원의 길,” 224.

241) Ibid, 34

VI. 결 론

기독교 복음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다시 말해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성화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왜 그토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견들이 많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던져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충분히 그 답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신칭의에 대해 그토록 많은 이견이 있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구하는 것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며 그 상황에 필요한 답을 찾기 때문이다. 또한 이신칭의가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발생하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왜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그토록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만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답은 인간의 상황이나 현실을 보기 이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죄 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義)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체험, 다시 말해 영혼에 발생하는 칭의와 중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임을 고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종교 개혁자인 루터를 필두로 ‘오직성경, 오직은혜, 오직믿음’으로 돌아가고자 외쳤던 대상인 중세카톨릭의 잘못된 구원관과 영국 국교회의 구원관이 형성된 배경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맹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단지 지적인 동의 정도라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진리에 대한 강조보다는 의식적인 부분과 인간의 행위 부분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세 로마카톨릭의 사상은 곧 종교의 타락과 사회의 타락을 가져왔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맹신도, 지적인 동의도 아닌 것이다.

16세기 중세 로마카톨릭과 18세기 영국국교회의 칭의관은 유사하다.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들은 세례시에 주입되는 1차적 의에 자신의 행위로 2차 의를 쌓아야 의롭게 됨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당시 사람들은 이를 따랐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스콜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상으로 인간 편에서 인간의 책임과 참여를 강조하는 공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그들의 칭의관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확신 아니면 좌절을 가져다주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100퍼센트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복음주의 원형인 루터, 칼빈, 웨슬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외친다. 서로 위치와 살아간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중심

사상은 공통되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복음주의자의 동일한 주장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 보았는데 먼저 원죄와 원죄에 대한 결과이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칭의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원죄의 상황 속에 있음과 원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지하며 무능한 것에 동의한다.

이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에 빠진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의에 일치하사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제시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또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인데 그 조건이 바로 믿음인 것이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칭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이 칭의에 이르는 믿음의 의미는 로마카톨릭이 말하는 무조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맹신도 아니고 또한 영국 국교회에서 말하는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내리는 지적인 동의도 아닌 것이다.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허락하셔서 이에 설득되며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주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되는 이신칭의의 결과로 중생(거듭남)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변화이다. 이 확신은 죄에 대한 승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평안 그리고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확신이다.

기독교 복음주의의 원형을 신앙 지상주의자 혹은 율법폐기론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 복음주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중생 이후에 성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옴을 주장한다. 이 성화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선행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하며 믿음으로 성화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의 삶은 오히려 율법주의적인 삶의 형태 혹은 사회참여를 뛰어 넘어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자기의 죄악 된 자아가 부정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하시는 온전함에 들어가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사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성경을 정확히 보고 설명한 이신칭의를 오해한 결과로 한

쪽은 칭의에 따른 필연적 성화교리를 무시하는 율법폐기론 혹은 신앙지상주의 쪽으로 흘러 버렸고, 또 한 부류는 이신칭의의 믿음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인간의 의지적 참여 혹은 결단을 촉구하는 율법주의 혹은 그 부류인 신인협동설 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 즉 의를 위해 선을 찾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주며 이 믿음은 우리를 성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인한 칭의와 믿음으로 인한 성화됨을 주장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며 또한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타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구원을 위해 완전하며 충분한 조건인 것이다.

현 기독교가 한 방향으로 치우쳐 기독교 윤리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으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멈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전 보다 더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나 기독교는 성장을 멈추었고 정체성을 잃어 인간의 현실에 집중하여 본질을 보지 못하고 이전의 오류도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이신칭의를 바로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본질이 무너지거나 없으면, 형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기독교의 윤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적 참여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신학대학에서는 신학생들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본질적 개념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의미의 파악과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는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학의 회복은 조직신학적 질문 안에서 다른 분과의 질문이 이루어질 때 일어난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주장하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다시 말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 있으나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계시는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자가 계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계시됨이요 계시됨은 전적인 은혜이다. 은혜안에 이끌려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며 간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됨이 드러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1 차문헌

약 어 :

『루터선집』 = 『루터선집』, 자원용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9.

『존 웨슬리 설교선집』 = 『존 웨슬리 설교선집(1)』, 이선희 역, 대전: 복음, 2002.1.

1. Martin Luther

Luther, Martin.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선희 역, 2002(미간행 번역원고).

———. “로마서 서문.” 존 딜렌버거 편집, 『루터 저작선』,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로마서에 붙인 서문.” 『루터선집(4)』.

———. “이것은 내 몸이니라.” 『루터선집(7)』.

———. “인간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6)』.

———. “칭의에 관한 토론문.” 『루터선집(6)』.

———. “크리스찬의 자유.” 『루터선집(5)』.

———. “하이델베르크 논제.” 『루터선집(5)』.

2. John, Calvin의 일차문헌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요약』.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기독교 강요(초판)』.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기독교 강요(영한합본)Ⅲ』. 김충호 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3) John, Wesley의 일차문헌

Wesley, John.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믿는 자들의 회개.”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믿음에 의한 구원.”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성경적 구원의 길.”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신 생.”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그 자신의 증언(1).”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주 우리의 의.”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존 웨슬리 설교선집(1)』
- . “신약성서 주해.” 『웨슬리 총서(5)』, 유동직 · 김용옥 역, 서울: 웨슬리 사업회, 1983.

II. 2 차문헌

1. 국내 서적

- 김균진. 『조직신학 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 김기련. 『종교개혁사』.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문기, 이선희, 최윤배. 『루터 칼빈 웨슬리의 구원론 비교』.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송홍국. 『웨슬레 신학-구원론을 중심으로-』.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5.
- 웨슬리 복음주의 협의회. 『웨슬리 복음주의 총서』 제1집. 서울: 광림, 1992.
- 이선희. 『웨슬레 신학의 탐구』.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2.
- . 『복음주의적 감리교 신학의 모색』. 대전: 도서출판 복음, 2003.
- 정수영. 『새교회사Ⅱ』. 대전: 도서출판 명현, 2000.

2. 번역 서적

- Buchanan, James. 『칭의 교리의 진수』. 신호섭 역, 서울: 지평서원, 2002.
- dieter, E.Melvin. 『성화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 김원주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1997.
- Cox, L.George. 『웨슬리의 완전론』. 김덕순 역, 서울: 은성, 1999.
- Eveson, H.Philip. 『칭의론 논쟁』. 석기신 · 신호섭 역, 서울: 문서선교회, 2001.
- Lindstrom, H. 『웨슬리와 성화』. 전종옥 역, 서울: 기독교 감리회 홍보 출판국, 1962.
- Starkey, M.Lycurgus. 『존 웨슬리의 성령신학』. 김덕순 역, 서울: 은성, 1994.
- Alister, E.Mcgrath. 『루터의 십자가 신학』. 정진오 · 최대열 역, 서울: 컨콜디아사, 2001.
- Grudem, Wayne. 『조직신학(상)』.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 . 『조직신학(하)』. 노진준 역, 서울: 도서출판 은성, 1996.
- Cannon, William. 『웨슬레 신학』. 남기철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교국, 1986.
- 노로요시오, 『존 웨슬리의 생애와 사상』. 김덕순 역, 서울: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3.

3. 일반논문

김영일. “웨슬리 신학윤리와 현대목회.” 『협성신학 논총』 웨슬리신학과 오늘의 교회. 서울:기독교대한감리회 홍보출판국, 1997.

김홍기. “존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신학에 대한 역사신학적 고찰(1).” 『기독교 사상』.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12.

박익수. “Πιστις Του Χριστου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호. 서울:감리교신학대학교, 2001.

유태주. “요한 웨슬레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 『신학과 사회』 5집. 한일 장신대학교, 1989.

조종남. “웨슬리 신학과 선교.” 『월간목회』 77호. 서울:월간목회사, 2001.

4. 학위논문

서상훈. “기독자의 자유에 관하여.” 『신학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한광희. “John Wesley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5. 사전류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사전』 제 12권. 서울: 기독교 교문사, 1984.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제 17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1994.

5. 인터넷 자료

<http://my.netian.com/~kpmlove/신학/구원론비교.htm>.

6. 기 타

김득중. “위대한 감리교회 건설은 올바른 성서관으로부터” 주제강연2, 기독교 대한 감리회 임원대회자료집, 2001. 4. 2~4, 경주.